

**금주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지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는 예배부터 모든 삶의 일상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지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10장 1-2절

## 올바른 말씀선포 회복과 예배 단순화

‘2019 종교개혁주일 맞아 항상 개혁돼야할 교회의 절대적 명제 강조

500년 전의 종교개혁운동은 미완성이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교회는 여전히 견재하게 남아있고 당시에도 개혁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때의 개혁의 가치를 높인 교회개혁운동은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활발한 개신교 국가들과 성도들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운동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개혁가들이 남긴 구호가 증명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est reformanda)! 교황권과 교회 전통의 권위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때에 기록된 성경의 최고 권위를 주장하고 그 말씀 선포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여독속에 눈부신 말씀의 빛을 쏟아냈다. 그 결과 부패와 타락으로 점철된 비성경적인 중세 교회개혁의 불길은 급속히 타올랐다. 유럽 많은 국가들이 개신교로 탈바꿈한 것이다. 당시 로마교회가 개혁사상을 다

수용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역사상 참혹한 종교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아마도 세계 복음화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른다. 반면에 해를 거듭하면서 신학적 차이나 혹은 정치 권력적 야욕에 의한 분열의 분열을 낳아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종교적 영향력은 현대 사회에서 접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길을 갔을 것이다. 어찌든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개신교는 계속해서 개혁의 불길을 끄지 말아야 한다는 사명을 발견하게 됐다. 그러나 교회 역시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수용하며 동시에 교권정치와 세속주의에 휘둘러져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에서 밀려나버린 지 오래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개혁된 교회일지라도 여전히 개혁해야 하는 절대적 명제 앞에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그려 보는 작업은 매우 필요하다.

루터에 의해서 점화된 종교개혁운동은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말씀 사역을 필두로 존 낙스의 성경에 충실한 개혁의 외침이 가세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에 눈 뜨게 했고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온전히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된 것만이 아니라 낙스에 의해서 주도된 1558년 제네바 영어 성경의 출판은 영국의 교회개혁운동에 기쁨을 부쳐 줬다. 진리의 능력을 굳게 붙든 많은 설교자들이 전역을 휘젓고 다니면서 진리에 목말라하는 영혼들을 구원했다.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간주하며 천성을 향한 영혼들의 행진이 줄을 이었다. 교회개혁운동은 항상 말씀 회복운동으로 특징 지워진다. 수많은 말씀 선포자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8세기 대카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로마카톨릭교회의 부패상을 적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붙임으로 시작됐다. 이 정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

성운동 역시 교회개혁운동이요 말씀회복운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강단이 성경으로 온통 뒤덮이지 아니하고서는 교회개혁은 끈기롭고 잡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혁의 기준은 어느 특정한 사상

이나 생각이 아니라 정확 무오한 성경뿐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자주 들어야만 바위도 풀리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존 낙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모르는 자들을 강단에 세우는 것은 강단에 우상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까지 말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전파에 충실한 설교자들과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심령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한편 예전과 예식이 신앙생활의 주를 이뤘던 중세교회에서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됐다. 신부들도 예전이나 알고 성경에는 전적으로 무지했다. 상당수의 신부들이 마치 복음서가 루터에 의해서 쓰여진 책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전 지키기에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에서 로마교 신앙을 위한 변증사 니한 원게이트조차도 자신의 교구 성직자를 호되게 규탄했다. (3면으로 계속)



뉴욕교협 제 45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회장 양민석 목사 선출 뉴욕교협 제 45회 정기총회

뉴욕교협 제 45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21일 열려 회장에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이트네교회)가 선출됐다. 부회장은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가 17일 후보 사퇴함에 따라 교협 사상 처음으로 부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평신도부회장에 손성대 장로(퀸즈한인교회), 감사에는 후보등록한 김주열 장로(뉴욕목양장로교회)와 총회석상에서 추천한 김영철 목사(순복음중앙교회), 김기호 목사(뉴욕주요양장로교회)가 선출됐다. 단일후보로 등록해 박수로 회장에 추대된 양민석 목사는 “주님이 십자가를 기쁘게 지라고 하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며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 나 자신에겐 감사의 눈으로, 남에게엔 변호사의 눈으로 보면서 서로 하나가 되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사장에서 자동선출된 손성대 장로는 “부회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회장을 잘 보좌하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년간 감사를 역임한 김영철 목사와 김기호 목사도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회장으로 출마해 ‘동일교단 3년내 출마 못함’(1750호 10면 참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문석호 목사는 17일 교협으로 이메일을 보내 후보사퇴를 했다. 김영식 선관위원장은 이날 경위를 설명하고 부회장 투표가 없음을 시사했으며 이에 대해 김용걸 신부는 선관위가 후보자격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10면으로 계속)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시론 은희곤 목사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	---	---

ATS와 ABHE 정회원 최고의 온라인 교육  
**월드미션대학교**  
 신학 / 상담학 / 음악학 / 간호학 / 유아교육 / 가정사역 / NGO사역  
**캠 퍼 스 | 온 라인**  
[www.wmsu.edu](http://www.wmsu.edu) | (713) 388-1000 | 1500 Shatto Pl., LA, CA 9002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청소년서적 / 영구 / 생애 학과 / 개론 / 교재총서 / 영성서적 / 영혼가운데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05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Riverchase Terrace, Paramus, NJ 07652  
[www.bestsaver.us](http://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bookusa.com](http://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역, 음향, 통역, 영적, 생가, 목회, 주부, 재직, 타월, 선물, 주부, 재직  
 TEL. 714.530.2211 | Fax. 714-330-8080 | bibvestoro@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 2019 밀알의밤

「지누션」의 **션 SEAN** 과 함께하는

## 하나님의 은혜

**11.1**  
@7:30pm  
ANC온누리교회  
10000 Foothill Bl.  
Lake View Terrace  
CA 91342

**11.2**  
@7:00pm  
남가주새누리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11.3**  
@7:00pm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행사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87,000을 지원하였습니다.

## 2020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수혜대상:** 장학생, 근로복지생, 공나무장학생

**자 격:** 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토폴임으로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 근로복지생: 0명 (미주밀알선교단 각 브랜치에서 봉사하는장애인 총 선별) 공나무장학생: 00명

**장학금액:** 장애인장학생 및 근로복지생: 1인당 \$3,600 (매월 \$300/1년간 지급) 공나무장학생: 1인당 \$1,000 (일시불)

**신청마감:** 2019년 11월 30일(금) / 발표: 추후 개별통보

**신청처:** smilal@milalmission.com

**제출서류:** 장애인장학생, 공나무장학생, 근로복지생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각각 다르니 장학금 신청서에 있는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서는 남가주밀알 홈페이지 ([www.milalmission.com](http://www.milalmission.com))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후원] **FOREVER 21** **ACE ENGINEERING, INC.** **JamesWorldwide**

예매처: **핫딜 hotdeal** 중앙티켓센터 <http://hotdeal.koreadaily.com>  
 213-368-9828 / 213-784-4628

복음사 562-865-4949 / 알라딘서점(올림픽점 213-739-8107, 플러튼점 714-523-7060, 가든그로브점 714-530-8484)  
 도르가기독교백화점 714-636-7430 / ANC온누리교회 서점 818-834-7000 / 남가주사랑의교회 서점 714-780-1111

두란노서원 213-382-5400  
 울타리서적 310-325-9191

Ticket Donation: \$15  
 티켓구입 및 문의:  
**남가주밀알선교단**  
[www.MilalMission.com](http://www.MilalMission.com)  
**562. 229. 0001**



● 발행인 칼럼 ●

### 루터가 되려면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끝끝내 개혁되지 않으려는 교회에는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많은 젊은이들이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에 방불한 교회의 현실 앞에 좌절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눈물은 흘리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스스로 답답해하고 있다. 길은 있다. 루터가 되는 것이다. 이 시대에도 루터가 필요하다. 오늘의 루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구하라. 면죄부를 사는 것이 구원 얻는 방법이라는 거짓 주장, 고행이 구원의 길이라는 역사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했다. 마침내 그는 성경에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참된 구원의 길을 찾는 감격을 무엇에 비교할 수 없었으리라. 성경에 대한 그의 폭넓은 실력은 그의 사역 전체에 계속 묻어났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루터가 걸었던 첫 번째 걸음이었다. 성경적 근거도 없이 자기의 감정이나 여론의 추이를 가지고 무엇을 바꾸려는 시도는 가소로운 것이다. 오늘의 루터가 되려는 젊은 개혁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말씀의 실력자가 되라. 말씀으로의 개혁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개혁이 아니다.

글을 쓰라.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글이 붙게 된다. 이 글이 전 세계를 바꾸는 글이 되었다. 로마카톨릭을 정면으로 비판한 루터의 95개 조항의 글이다. 글은 무엇보다 글 쓰는 사람의 생각을 정리해준다. 글은 말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아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글에 영향을 받는다. 담임목사님이 너무 견고하신가? 장로님들의 변화를 거부하시는가? 개혁을 소망하는 젊은이들이여, 그들을 존중하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감동적으로 담아낸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보시라.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적잖이 고민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변화가 생각보다 일찍 시작될 수도 있다.

담대하라.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가 있었다. 37세의 루터가 황제 카를 5세로부터 소환된 어마무시한 자리이다. 루터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결정도 가능한 자리였다. 그 자리에 있던 고관대작들의 눈에 애송이 같았던 루터는 결코 떨지 않았다. 물론 타협도 없었다. 루터는 담대했다. 그는 말씀에 매여 있었고 양심을 더럽히지 않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청하며 또 확신하며 꿋꿋이 서 있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담대함이 개혁자의 모습이다. 내가 죽고자 할 때 개혁의 꽃은 피어난다. 소심함으로 또는 나는 어떻게든 살고 보겠다는 마음으로는 개혁의 "개"자도 꺼내지 말자.

기다리라.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한 루터는 갈 곳이 없었다. 그때 프리드리히 3세라는 제후가 루터를 바르트부르크 성 안에 머물게 하였고 그를 보호해주었다. 그는 거기서 집거의 시간을 보냈다. 그저 숨어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입 다물고 있던 것의 그의 전부가 아니었다. 그 시간 그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 그의 기다림은 일의 전개됨과 그의 성숙함의 다른 이름이었다. 조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을 앞서려고 내대지 말라. 개혁주의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기다림이었고 오늘의 젊은 개혁자들에게도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렇듯 오늘에도 루터가 되는 길이 있다. 이 시대의 루터는 어디에 있는가.

# 과거를 변화시켜 새로운 미래를 연다!

## CT, 스미디스(Lewis B. Smedes)의 '과거를 바꾸는 용서의 힘' 소개

우리 인생에는 커다란 열거거리가 두 가지 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에 열거한다. 우리는 개인의 과거사를 다시 쓰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도리가 없다. 우리는 또한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열거한다. 우리는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지만, 미래를 우리 마음대로 통제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한 이 두 가지 기본적인 바람은 좌절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고 통스러운 과거를 고칠 수 없고, 무시무시한 미래도 통제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깊은 염려에 두 가지 해답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므로 과거를 재창조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의 뒷부분에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인간 영혼의 이 두 가지 능력에 관심을 집중하며, 성경의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만이 우리의 음울한 예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한나 아렌트는 역사의 환원 불가능성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는 바로 용서라고 말한다.

미래를 통제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셔서 과거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과거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통제하는 그분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다.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해야만 한다. 우리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실제로, 하나님께 속한 이 두 가지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답고, 자유로울 수 있다.

이에 크리스챤리티투데이(CT)는 스미디스(Lewis B. Smedes)의 '과거를 바꾸는 용서의 힘'을 게재했다 (Forgiveness-The Power to Change the Past: To forgive is to set a prisoner free and discover that the prisoner was you).

수 없다. 우리에게 상처 준 적도 없는 사람을 그저 용서하는 체한다면, 용서의 기적을 값싼 사면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악인만 용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간에, 당신이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용서가 아니라 다른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상처에 용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연약한 인간으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감내하고 무시하고 감수해야 할 상처들도 있다. 이런 일은 굳이 용서하려 애쓸 필요가 없고 약간의 영적 아픔을 베를 면 될 일이다. 다음의 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불쾌감: 약속에 늦는 사람, 저녁식사 자리에서 지루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 계산대에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은 우리를 짜증나게 만든다.

패배감: 우리가 망할 때 반



### 용서 행위에는 고통, 영적 수술, 새출발 3단계 있어

#### 용서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파도 폭대기에 올라타는 것 포로 풀어주고 보니 그 포로가 바로 나 자신 깨닫는 것

다. 또 그 다음 장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

아렌트는 역사의 환원 불가능성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로 용서를 꼽는다. 사물의 자연적인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와 그 영향력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지만 그 역사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역사를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 역사를 반복하는 불운을 타고 났을 수는 있어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 역사는 인간 존재의 불가피한 구성 요소다. 우리를 역사의 굴레에서 해방해 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

다. 아렌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용서라는 이 인간 잠재력을 재조명해볼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일찍이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에 대해 단순히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용서의 능력을 간구해야 할 강력한 이유를 제시하셨다. 내 안의 원망하는 마음은 애써 무시하고 싶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다(막11:25).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용서에 관한 상투적인 표현들로부터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구별해내야 한다.

모든 용서 행위에는 고통, 영적 수술, 새출발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인

고통은 용서가 필요한 조건을 만든다. 두 번째 단계에서 실제적인 용서가 이루어진다. 용서하는 사람이 기억 속에서 영적 수술을 집도하는 것이다. 이 행위를 완료하고 나서 세 번째 단계에서 절정에 이르는데, 용서하는 사람은 자신이 용서한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된다.

#### 고통

본인이 상처를 받지 않는 한에는 진정한 용서가 있을

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승진에서 탈락했는데 승진한 사람, 우리는 빈손인데 큰 상을 받은 사람, 늘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는 듯한 사람. 설상가상, 이렇게 우리를 물 먹이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라니.

모욕감: 우리의 좀 알아 봐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p>· L.A. Office</p> <p>·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p> <p>· Tel. (213) 674-7982 (내선) (323) 965-0009(광고국)</p> <p>· E-mail: lachpress@gmail.com</p>	<p>· N.Y. Office</p> <p>·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p> <p>· Tel.(718)886-4400(내선) (718)886-4424(편집국)</p> <p>· Fax(718)886-0074(내선)</p> <p>· E-mail: nych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weekl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0, July 6, and Nov 30.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www.rptseast.org

##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은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 올바른 말씀선포 회복과 예배 단순화

(1면에서 계속)

낙스 자신에 의해서 가해진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질타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부패한 삶을 비난한 것만이 아니라 예전행위들만 드높이는 무언의 교리들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침묵하고 있는 것을 비난했다.' 무지와 무관심과 의식행위만이 존재하던 중세시대의 회화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 단순화를 기하면서 신부들의 전횡을 막고 만민 제사장직을 가르쳤다. 예전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예배의식은 인간이 고안해낸 무엇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것대로 해야 할 것으로 가르쳤다.

그것이 수동적인 의전 행사를 능동적인 예배 참여로 이어지게 하면서 신앙생활의 맛을 새롭게 경험하는 변혁을 가져온 것이다.

예배는 거둔다 백성들이 가지는 특별한 특권이요 영광이다. 예배는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지만 전도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 대한 영적 생명의 분능이다.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의무가 아니라 삶 자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돼 있다는 신앙고백이요 충성 맹세다.

이러한 예배가 지금은 종교의식으로 전락했다. 하늘의 복을 받아내기 위한 흥정의 대상이 됐다. 예배자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 골

라가기가 만연해버렸다. 인본주의 예배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예배시간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법도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성경에 명시돼있지도 않은 족보 불분명한 것들은 예배의 대상자인 하나님의 의중은 안중에도 없다. 교회마다 섬기는 대상인 하나님이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는 것처럼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되신 하나님과 같지 아니한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다. 철저하게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따른 참된 예배여야 한다.

올바른 찬송이 들려져야 한다. 특히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주신 시편을 노래하는 것을 속히 도입해야 한

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도록 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경적이지 않은 가사들과 사람들 들으라고 쓰여진 내용들로 가득한 노래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예배 찬송으로 부르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결론으로, 종교 개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신경써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가운데서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틀린 것들,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들, 우리의 교회제도 가운데서 성경에 비추어 틀린 것들을 고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종교 개혁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방식이 된다.

(편집부)



### 시론

## 1173번째 기적-나눔과 생명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1951년, 호주의 한 병원에서 14살 소년이 폐 일부를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무려 130ml의 혈액을 수혈 받아야 했던 대수술 끝에 살아남은 소년은 사람들의 헌혈로 생명을 구했으니 자신도 몸이 건강해지면 나중에 꼭 헌혈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선 최소 18세가 돼야 헌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 18세가 된 소년은 헌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피에 '레서스 용혈성'이라는 희소병의 항체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서스 용혈성'은 RH-의 혈액형을 가진 여성이 RH+의 혈액형을 가진 아이를 임신하면, 산모의 몸이 혈액형이 다른 태아를 외부물질로 인식해 공격하는 질환인데 태아에게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히거나 유산되게 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던 아기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소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 소년은 주저하지 않고 2주마다 '혈장 헌혈'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60년이 넘도록 해온 것입니다. 호주 '제임스 크리스토퍼 해리스' 은 이렇게 18세부터 81세가 될 때까지 무려 1,172회의 헌혈을 했습니다. 해리스의 항체로 '안티-D'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히 항체가 필요했는데 직접 항체를 제조하는 실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해리스는 헌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1년 그는 1,000회 헌혈로 월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해리스의 헌혈로 새 생명을 얻은 아이는 240만 명에 달합니다. '황금 팔을 가진 사나이!' 사람들이 해리스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173번째 혈장 헌혈이 해리스에게는 마지막 헌혈이 되었는데 이유는 81세가 되면 호주 정부 기준에 따라 더 이상 헌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리스의 피가 왜 특별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의사들은 14세 때 많은 양의 수혈을 받은 것이 원인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는 피가 나의 생명을 살렸고, 그로 인해 수백만 명의 아기가 건강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세상에 뿌린 아름다운 마음이 수백만 명의 아이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해리스와 같은 항체를 가진 사람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해리스의 헌신에 감명 받아,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피운 글).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한 소년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양을 수혈한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 살아난 소년이 자기의 피가 어린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가에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더하고 싶어도 법적 제약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시점까지 무려 1,173회의 헌혈을 했습니다. 말일 1,173회 헌혈이지, 1년에 18회 평균 2달에 3번씩 66년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13리터의 피로 자기를 살려준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 그러기에 그 감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300만명 가까운 어린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합니다. 복음의 대명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시켜라,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어라, 축복받았으니 복의 통로가 되거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과 구원,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가뉘서 나만 즐겨서는 안 됩니다. 갇힌 물이 썩듯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라는 용덩이에 가뉘 놓는다면 다 썩어져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웃에, 세상에 흘러 나가야 합니다. 흘러가는 물이 깨끗하고 맑고 항상 채워지듯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흘러 내보낸다면 곧바로 다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계속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대명제는 "가뉘"이 아니라 "통로"요 "나눔"입니다. 그때 '통로와 나눔'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황금 팔을 가진 제임스 크리스토퍼 해리스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할아버지의 특별한 항체를 지닌 피로 죽어가던 300만명의 어린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피로 그 피를 믿는 인류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느덧 십자가 어린양 예수의 대속의 피, 나를 살리려고 대신 흘린 그 피를 너무나 무감각하게 있고 살아갑니다. 예수의 피에 대해 감동도 희미해져 갑니다. 예수의 피가 내 심장에, 교회에 매마르지 않고 흘러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리고, 예수의 피로 자녀들과 가정의 삶과, 예수의 피가 교회와 세상을 살리니 가장 먼저 우리의 감사는 "예수", "예수 십자가의 피"여야 합니다. 우리도 올 가을엔 예수의 피에 너무 감사하며 빛진 자되어, 내 피(재능, 물질, 시간 등등)를 세상에 나눠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기적을 일궈내면 어떤런지요? 크리스토퍼 해리스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들의 일상에 있고 나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예수 사랑에 빛진 자되어 기적을 만들어가는 '감사의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 '예수'를 봅니다. pastor.eun@gmail.com

### 과거를 변형시켜 새로운 미래를 연다!

(2면에서 계속)

우리가 존경해 마지않은 교수님은 졸업하고 2년이 되면 우리 이름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은 친목 모임에 우리를 초대하는 법이 없다. 그런가 하면 우리 회사 상사는 따님 결혼식인데도 청첩장을 건네지 않는다.

이런 사건들은 모두 상처가 되지만, 굳이 용서가 필요한 일은 아니다. 조금 더 참고, 아량을 베풀고, 겸손하고 너그럽게 생각하면 될 일이지, 용서할 일은 아닌 것이다!

용서가 필요한 상처는 깊고 도덕적인 상처인 경우다. 깊은 상처는 사람들을 묶어주는 관계라는 끈을 잘라 버린다. 도덕적인 상처란 잘못된 행위, 불공정한 행위, 견딜 수 없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상처들은 적당히 봐주거나 넘어가기가 힘들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무시할 수가 없다.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용서가 필요할 정도의 상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 사이에 벽을 세운다.

용서라는 기적이 필요한 상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불성실과 배신이다. 용서가 필요한 상처 중에서 이 두 부류에 들어맞지 않

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불성실한 행위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가? 친구 혹은 가족인 누군가가 당신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불성실한 행위다.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신실함으로 묶여 있다. 이런 연대감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인지 잘 말해준다. 인간은 자신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실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우리가 밀접한 사람이 우리를 낯선 이로 대할 때, 그는 두 사람 사이에 도랑을 파고 벽을 쌓는 셈이다. 그렇게 그는 우리의 정체성에 폭력을 가한다. "포기하다", "버리다", "실망시키다" 같은 단어들 이 떠오른다.

#### 영적 수술

용서의 두 번째 단계는 상처 입은 자가 상처를 준 자에게 보이는 내면의 반응과 관계가 있다. 용서하는 당사자의 머리와 가슴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용서받는 상대방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말이다. 용서하는 사람은 자기 기억 속에서 영적 수술을 감행한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잘못된 행위를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저지른 가슴 아픈 행동으로부터 상대방을 분리해서 그 사람을 재창조한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이후로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다. 그는 당신의 기억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당신과 멀찍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 한때는 그 사람을 약한 일에 능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사람으로 본다.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러 고통스러운 과거를 안겨준 사람을 재창조함으로 당신은 자신의 과거를 재창조한다.

당신이 그 사람의 뉘뉘이를 바꿀 수는 없다. 그가 저지른 행동은 그의 존재와 떼려야 뗄 수 없다. 그의 잘못은 그대로 속에 있다. 하지만 당신의 기억 속에서 그를 재창조하면 마음에서 행한 영적 수술로 그는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신다. 어머니가 아이의 더러운 얼굴을 씻기듯이, 당신의 어깨에서 짐을 풀어 염소 등에 지워서 광야로 몰

아내듯이, 하나님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 성경의 비유들은 하나님이 기억 속에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수술을 행하셨음을 보여준다.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경우가 있다. 이미 죽은 사람, 우리의 용서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 이라면, 기억 속에서 영적 수술을 하는 것으로 용서의 과정이 끝난다.

#### 새출발

서로 멀어졌던 두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비로소 용서의 기적이 완성된다. 딸과 소원했던 아버지가 딸의 손을 붙잡고 "이제 다시 애비 노릇 제대로 하고 싶구나"라고 말한다. 남편의 손을 잡은 아내는 "이제 다시 아내 노릇 제대로 하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친구의 손을 잡은 사람은 "이제 다시 친구 노릇, 동료 노릇 제대로 하고 싶네.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보세"라고 말한다.

화해는, 원래 좋은 사이였지만 멀어졌던 두 사람이 재결합하는 것이다. 화해는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멀찍이 떨어진 이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재결합을 시작해야 한다.

(9면으로 계속)

###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악성 바이러스

'The Love Bug'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타임지(Time)에 'The Love Bug'란 이름으로 표지를 장식한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의 이름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파괴력이 막강해서 발생 일주일 만에 전 세계 4000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전 세계의 인터넷을 마비시켰습니다. 'Love'란 단어가 들어간다고 무조건 다 좋지는 않습니다.

악성 바이러스가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면 컴퓨터 기능에 오류가 생깁니다. 데이터가 파괴되고 인터넷이 마비되고, 중요한 정보가 유출됩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 언론, 공공기관, 국가 기관이 위협을 받고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 삶에도 나도 모르게 침입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고 파괴시키는 악성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망'일 것입니다.

다. '원망(怨望)'의 사전적 의미는 '억울하게 또는 못마땅하게 여겨 닦거나 분하게 여겨 미워함'입니다. '원망'의 성경적 의미는 '불평하다, 투정하다, 중얼거리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원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다양한 일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의 대가입니다.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마늘과 파가 없다고,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원망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거인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한다고 원망했고, 그들과 비교하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원망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도 원망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지난 40년 동안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습

니다. 원망은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합니다. 어쩌면 마약 중독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쉽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에 저장되어 있다가 결국 입으로 다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저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자 이번에는 갈증과 배고픔으로 인해 죽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에는 불 뱀에 물려 죽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이 몸에 배인 나쁜 습관처럼 저들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는 벗어났지만 끝없는 불만족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한번 원망의 맛을 보면 계속 그리고 한 없이 탐닉하게 됩니다.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원

망이란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원망하면 두 번, 세 번, 습관적으로 계속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원망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이 원망하면 아내도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성도 곁에는 언제나 원망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원망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신앙인이 누리지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마라의 쓴 물 뒤에 있는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의 맛과 멋을 모릅니다. 원망 바이러스를 경계하세요! 원망은 영적인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원망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 다운(Down)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생활에 오작동이 생깁니다. 수십

년 동안 나의 영적인 메모리에 저장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란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나의 영적인 기능이 파괴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 바이러스로 감염을 시켜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세운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교회와 신앙공동체가 원망 바이러스로 병들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이메일을 함부로 열지 마세요.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망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우리 모두 나의 입과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서 원망 바이러스를 차단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푸/른/초/장

장성철 목사  
(보스턴장로교회)



현대인의 인생은 마치 숫자로 표현되고, 숫자로 인정받고, 숫자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의 평점과 SAT, GRE 점수가 학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또한 나의 신용점수는 집과 자동차 구입의 용자 이자율을 결정합니다. 혈압의 숫자와 콜레스테롤 수치, 몸의 당 수치 등은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0과 10 사이에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의 예배자로서 숫자는 어떻게? 퍼펙트10에 가까울까, 아니면 형편없는 제로에 가까울까?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 의미를 되찾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만 아니라 문화, 학문, 경제, 정치,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즉 종교개혁은 삶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삶의 개혁은 참된 예배에서 나오는 힘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면서 이어서 2절로부터 5절에서 삶의 개혁을 원하는 참된 예배자의 퍼펙트 10인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정직한 행동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며"(2절)라고 합니다.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타낸 품행이나 행실이 흠 없이 정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흠이 없는 정직한 예배자는 나쁜 친구를 본받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4절)라고 말씀합니다.

친분관계는 성도의 품격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가르침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롬16:17)고 명령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세상과 벗하지 않고, 분쟁과 불순종의 사람들을 본받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직한 예배자는 좋은 믿음의 친구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4절). 말라기 선지자의 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의 종교적 삶이 밀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6-7)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과 혼돈, 그리고 쇠퇴하여 약해져가는 믿음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흠이 없는 정직한 예배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깨끗함을 입고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공의로운 일을 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공의를 실천하며"(2절)라고 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는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4절). 본문의 의미는 매우 날카로운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의인이라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해를 입고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변치 말고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약속을 하

복을 받아 부하게 되었다는 믿음의 자서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5절). 돈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지적한 것입니다. 성경은 돈이나 어떤 물건을 빌려주고 터무니없는 엄청난 이자를 받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출22:25, 레25:36, 신23:19).

변리 이자는 가난한 자들을 파괴적으로 착취하며 부정직한 사업으로 나타냅니다. 물론 예수님의 예화에 보면 돈을 꾸어준 사람이 정직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하면서 이윤을 보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시편 말씀은 고리대금업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상황을 악용하는 사업적 수완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심해야 하는 것은 변리로 돈을 취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높은 이자의 신용카드에서 취하여 사용하는 사

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도덕률초월론)는 윤리적 책임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하나님에 인정하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겠다고 말한다고 해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업의 일터에서 바르게 실천하지 못한다면 참된 헌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개혁이 필요 합니다.

3.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2절)라고 합니다.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행동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직장의 일들도 상대를 기만하며 속일 수 있지만,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약3:2) 말씀합니다.

이윤과 이익을 위하여 허구와 거짓이 난무하는 상업주의 시대에 "광고의 진실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의미는 어떤 오류나 과장이 없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신 예수님(요14:6)이 내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의 도에게 복종케"(고후10:5)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엡4:15). 대중 전달의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는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성도의 가치는 참 소중할 것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팜보스'라는 수도승이 스승에게 시편을 한 절씩 읽으면서 글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시편 15편 2절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지키겠다. 앞으로는 나의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글을 배우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수년이 지난 후에 스승이 왜 다른 구절들을 배우러 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진실만을 말하며'라는 말씀을 마스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죄에 연약한 나는 할 수 없지만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늘 진리의 정직한 말만 할 줄 믿습니다.

(9면으로 계속)

# 삶의 개혁

## 시편 15장 1-5절

시편 15편은 24편과 함께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법궤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면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궤를 옮기던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옷사가 손을 들어 궤를 잡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옷사의 잘못에 진노하셔서 옷사가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게 됩니다(삼하6:1-23). 흔들리는 법궤를 잡으려고 했던 옷사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죽을죄를 지은 것입니다. 레위 자손 중 심지어는 고핫 자손이라 하더라도 법궤는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민4:15). 또한 아무도 법궤를 들여다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민4:20). 이런 하나님의 엄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옷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순종한 죄의 대가로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돌아보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르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라고(1절) 외치

교회에서 뿐 아니라 사회에서 보면 바람직한 친구관계도 있고 품위가 떨어지는 친분관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의 친구였지만 항상 예수님의 친분관계는 회복과 구속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약한 자들을 멀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본받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친구관계입니다. 반면에 성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친분관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약4:4)고 하면서 세상과 벗이 된 것은 감응하는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의 노래가 더 좋아서 늘 세상 노래를 즐겨들으며 쿿노래로 부른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의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가 더 좋아서 그것에 몰입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사람 사이를 가르며 분쟁하는 자들과의

제단에 부정한 제물을 드리며 십일조와 헌물을 도둑질하기에 이른 것입니다(말3:8-9). 하지만 말라기 3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말3:16). 여호와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모인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라고 했습니다(3:3). 여기서 '의합한다'는 의미는 흠이 없는 정직한 행실과 믿음의 교제로 서로 뜻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의합한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말씀합니다(행2:42). 또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람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서원을 하였기에 그 대가가 어떤 것이라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만일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도덕적 태도와 책임감을 보인다면 교회뿐 아니라 사회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브람이 조카 롯을 사로잡았던 엘람왕과 동맹한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람은 그 얻은 것의 십분의 일을 바치고 멜기세덱은 축복을 합니다. 이때 소돔왕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창14:21)고 제의합니다. 그러자 아브람은 소돔왕이 나중에 '내가 아브람에게 물품을 주어 그가 부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 대한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십일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쓰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고, 약속을 지키므로 하나님께

를 받든 축복을 받든 것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 대한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도 취하지 않습니다. 십일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쓰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고, 약속을 지키므로 하나님께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공립학교 내 "Bible Literacy Class" 가 들어가고 있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립학교들이 'Bible Literacy Class-성경 학습 클래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성경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개의 주들이 성경 교양과목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나라를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시작이 될 수 있는 대단한 일이다"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의 이 트윗 글은 Fox채널 프로그램 중 하나인 Fox & Friends 코너에서 노스다코타의 공화당 하원의원인 Aaron Mac Williams가 자신의 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에 올려 졌습니다. 인터뷰 내용의 질문과 응답을 정리합니다.

**질문 1:** 성경학습클래스(Bible literacy class)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성경학습과목(Bible literacy class)'은 공립학교에서 역사와 문학의 관점에서 선택 과목으로 '성경'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질문 2:** 어떠한 주들이 '성경학습클래스(Bible literacy class)' 법안을 추진하고 있나요?

노스다코타, 미조리, 인디애나, 웨스트버지니아, 버지니아 그리고 플로리다인데, 앨라배마와 아이오와, 웨스트버지니아 주들에서 첫 과정은 통과했는데 끝까지 통과하는 데는 민주당들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질문 3:** 왜 점점 더 많은 숫자의 주들이 '성경클래스도입'에 대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일까요?

미국에서는 생활의 모든 것이 다 "법"으로 연결됩니다. 악법도 선한법도 통과되면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가장 큰 두 정당들(공화당, 민주당)이 각 정당에 어떤 원리 원칙을 그들의 정강(Platform)에 적느냐는 각

정당들이 준수할 가치관과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갈 그 당의 정책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뒤 배경을 가지고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지난 2016년, 공화당은 그들의 정치 정강(Political Platform)에 '성경학습클래스(Bible literacy class)'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정강에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교육받은 시민의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주의회들이 미 고등학교들의 문학 과정에 선택 과목으로 제안하는 것을 장려한다."

정강에 적힌 내용은 2015년에 "Project Blitz"이라는 발의안에도 부분적으로

으며 "구약과 신약 시대의 역사와 문학에 대한 공립학교의 선택과목 시행령"을 뜻합니다. 이 법안은 학군을 총괄하는 교육청이 9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선택과목으로 택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더 넓혀 가고 있습니다.

**질문 4:** 공립학교의 성경 학습 클래스에서는 어떤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

△신구약 성경의 내용, 문학적 형식 그리고 구조 △신구약 성경의 풍습,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종교와 사회에 대해 기술한 부분들 △신구약 성경 당시의 역사와 지리적 장소들에 대해 성경



바렌타운터 고등학교에서 토드 스타빈겐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경학습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워싱턴포스트).



트럼프대통령이 올해초 트위터에 성경학습클래스 도입에 대해 지지를 표하고 있다.

로 적혔는데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 크리스천의 종교적 가치관들과 신앙을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보호하며, 그 신앙을 뒷받침 하는 이야기들을 되찾고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이라고요.

"Project Blitz"는 Congregational Prayer Caucus Foundation과 National Legal Foundation 그리고 Wall builder 라는 목회자들을 일깨우고 정치를 정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문화와 사회, 교육 일반적 삶을 다시 성경적 가치관으로 회복시키려는 단체들의 후원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Project Blitz"의 핵심 요소는 주의 회들에게 '성경학습시행령(The Bible Literacy Act)'이라는 이름으로 나왔

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 △신구약 성경이 법, 역사, 정부, 문학, 미술, 음악, 풍습, 도덕, 가치관과 문화에 미친 영향들 △신구약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기록 방법과 도구들, 그리고 책들을 보존한 방법들 △신구약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언어들 △신구약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었을 당시의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사건들

**질문 5:**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합법인가?

합법입니다. 단, 특정 조건하에서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Facebook에서 Tvnext.org로 가거나 직접 Tvnext.org로 가면 볼 수 있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적그리스도에 대해 별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종말론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다고 바울이 말했다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싶습니다.

-갈순의 홍 권사

**A:**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바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2-3절에서 나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해 성경 세 군데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데살로니가후서 2:2-3절에서는 불법의 사람,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이란 헬라 원어로 보면 "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는 하는 일마다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술수를 행하는 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라는 뜻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적그리스도를 마태복음 24:15절에서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둘째,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Beast)라고 14번이나 표현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면 적그리스도는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계시록 13: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사자와 표범과 곰과 열쌍이 있는 괴물 같은 짐승이

살후2:2-3, 마24:15, 계13장, 요일2:18 등에 적그리스도 언급

나오는데 이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적 기독교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입니다. 요한 당시에는 기독교를 핍박한 네로나 도미티안 등 로마황제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말세의 적그리스도 국은 네 가지가 다 한 몸으로 합작한 무서운 괴물로 표현합니다. 이 짐승은 포악하고 영리하며 욕심이 많고 무서운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와 대항해 싸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난 루시퍼가 최후의 발악으로 이 짐승에게 세상 권력을 통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누가 이짐승과 싸우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국가의 권세를 가지고 짐승처럼 교회를 물어뜯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을 예언하여 짐승(Beast)으로 표현했습니다.

셋째, 요한1서 2:18절에서 사도 요한에 의해 "적그리스도"란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렀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의 적이란 헬라어 접두사 anti(안티)인데 주로 2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대항하여(against)"와 둘째는 "대신하여(substitute)"의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대적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배를 받으며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였으며 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처럼 자신이 왕좌에 앉기 위해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신성모독의 행위까지 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서 말합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교회

<p><b>뉴욕몽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b>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b>뉴욕새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 어 예배: 오전 10:45 수 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30(월-토)</p>	<p><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6: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45분 청년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토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b>주비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00</p>	<p><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3: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주일 12:00</p>	<p><b>칠레 한인연합교회</b>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b>토론토 가든교회</b>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후예배: 오후 7: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b>멕시코 현지인 교회</b> 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빙코카크(BINGKOKAK)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계속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무슬림인 300개 이상의 독특한 집단들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들은 호주,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주대륙 사이의 중요한 바다를 차지하고 있다.



이 섬들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다. 52,600빙코카크(또는 메콩 카라고도 알려진)는 소로아코 근처의 메콩가산의 솔라웨시 남동쪽에 있다. 언어는 메콩카라고도 불리는 데 툴라키의 방언으로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이다. 빙코카크는 특별히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습관이나 문화는 근거 없는 가정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가까운 이웃인 판카나족, 매론네네족, 툴라키족과 거의 비슷하리라고 추정한다.

삶의 모습

솔라웨시는 약 3,500마일의 해안선이 있는 섬이다. 이것은 깊은 만으로 분리된 4개의 반도로 이뤄졌는데, 두 개는 남쪽으로 뻗어 있고, 두 개는 북쪽으로 뻗어 있다. 이 섬의 남쪽 부분에 솔라웨시의 최고봉인 롬포바탕산이 있는데, 해발 9,419피트로 활동이 멈춘 화산이다. 이 지역의 기후가 열대성이지만 고도와 해안지역이여서 약간 변화했다.

빙코카크에는 "스위덴스"(별초해 태우는 농법에 의해 깨끗하게 된 땅)에서 자란 옥수수가 주요 농작물이고 고구마, 사탕수수, 채소, 담배, 커피도 자란다. 개척지 사이사이에 흩어져 집들이 있고 집들은 보통 기둥 위에 짓는다. 일반적으로 풀로 엮어 만들고 놓는 지붕이

있다.

귀족 중 상위계급과 하위계급 그리고 서민으로 이뤄진 뚜렷한 사회계급은 솔라웨시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그룹이 받아들이고 있다. 각 계급은 보통 다양한 관습과 전통에 따른 자신들만의 행동 규정이 있다. 구역은 전형적으로 마을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마을의 의회에서 관리된다. 그러나 의회가 결국은 모든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빙코카크의 결혼관습은 약혼 때와 결혼할 때 여자의 가족에게 값을 지불한다. 신부의 값은 젊은 남자의 사회적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결혼 전에 남자는 미래의 처가에서 시험적인 기간을 갖도록 요구되는데, 이 요구가 종종 가축을 유별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예와

그 후손은 함께 살 수는 있었지만 서로 결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귀족계급의 여성들은 서민들과는 결혼하지 않았다. 어떤 상류계급에서 일부다처제가 있기도 하지만 오늘날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날 인도네시아는 땅을 소유하지 않은 농부가 8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덜 개발된 섬으로 이주해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땅과 집 그리고 다른 지원들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앙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우세한 종교는 이슬람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따르고 있다. 14세기 전 에게해에 널리 퍼져 있던 힌두교는 지금은 주로 발리섬의 소수만이 믿고 있을 뿐

이다. 인도네시아의 14%정도가 크리스천이며 주로 개신교도다. 그리고 많은 중국인들이 불교-도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애니즘"이 멀리 떨어진 지역의 부족들에 의해 믿어지고 있다.

빙코카크는 94%가 수니파 무슬림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미신, 특히 악령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매우 중요하다. 빙코카크의 6%만이 크리스천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빙코카크의 신자들은 교회 성장이나 전도에 관한 자료 거의 희박하다. 또한 최근엔 어떤 선교단체도 그들 안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과 다른 자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북아일랜드, 동성결혼·낙태 허용

AP 통신은 21일 북아일랜드에서 공동정권이 출범하지 못하게 되면서 동성결혼과 낙태가 합법화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동성결혼과 낙태 처벌 금지는 영국 의회가 지난 7월 통과시킨 법 때문이다. 영국 하원은 21일까지 북아일랜드 공동정권이 재출범하지 못할 경우 영국 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북아일랜드에서 동성결혼과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북아일랜드 의회가 의장 선출에 실패하면서 동성결혼과 낙태를 처벌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2020년 1월부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3월 말까지 합법적이고 무료인 낙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그 때까지 동성결혼과 낙태에 대한 조사나 기소, 처벌이 중단된다.

북아일랜드는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24주 이후에도 산모 건강, 기형 등 예외사유를 인정하는 영국 내 다른 지역과 달리 낙태를 강력하게 금지해왔다. 북아일랜드 법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이 외의 다른 이유로 낙태를 할 시에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폭행, 근친상간, 태아 기형 등의 사유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아일랜드는 또 영국 내에서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굿프라이데이 협정)으로 자치정부 지위를 얻은 북아일랜드는 영국 잔류를 희망하는 연방주의자 정당과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원하는 민족주의자 정당이 공동정권을 꾸려 왔다.

지난 2017년 3월 북아일랜드 의회 선거에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이 1위, 민족주의 정당인 신페인당이 2위를 차지했지만 동성결혼 인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년 반이 넘도록 공동정권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미 하원 '홍콩 인권법' 통과...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홍콩 인권법'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중국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15일 본회의를 열어 홍콩 인권법을 포함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법안 2건과 결의안 1건을 가결했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 정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과 중국의 영향력을 평가해 홍콩이 경제·통

상에서 누리는 특별한 지위를 계속 부여할지 재검토하도록 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달리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 있는 인물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회는 또 홍콩 인권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고무탄과 최루탄 등 시위 진압 장비의 홍콩 수출을 중단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를 규탄하고 홍콩 시민의 시위권을 지지하는 결의안과 명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미국의 인도 요청에 응하도록 캐나다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도 통과했다. 미 상원은 몇 주 안에 홍콩 관련법을 표결할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만약 미국이 상업적 이익 때문에 중국에서의 인권을 옹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도 인권을 옹호할 모든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될 것"이라며 "나는 억압적인 정부 편을 드는 사람들에게 '은 세상을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냐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벤 레이 무한 민주당 의원은 "하원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싸움에 함께할 것이라 강력한 메시지를 홍콩에 보낸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마리오 디아즈 발라트 공화당 의원은 "홍콩이 자치와 자유를 유지할때만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 미국 의회의 홍콩 인권법 가결에 대해 "강렬히 분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경향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하원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시위대가)함부로 방화하고 상가를 부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단호하게 반격에 나설 것"이라며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중국 내정에 속한다.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정세를 분명히 보고, 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빠를 잡아채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보통 보복 조치에 나서기 전 "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빠를 잡아챌다"는 표현을 써왔다.

고가 나이키 '예수운동화' 몇분 만에 매진

성경구절이 적힌 '예수 운동화'(Jesus Shoes)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최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에 본사를 둔 스투디오 미스치프(MSCHF)가 나이키 화이트 에어 맥스 97s를 재해석한 운동화를 선보였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는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 구현해 낸 이 운동화는 고가에

도 불구하고 출시 몇 분 만에 매진됐다고 한다. 신발의 가격은 1,425달러이며 20컬러 한정판으로 가격이 최소 4,00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신발 옆면에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뜻하는 'MT. 14:26'이 적혀 있으며, 에어 속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요르단 강에서 공수해온 성수가 들어있다. 이를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 하늘색 컬러를 입혔다.

신발 끈 부분에는 십자가 위의 예수상이 달려 있으며, 운동화 발등 부분인 설피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빨간색 물방울무늬가 그려져 있다.

또 100% 울로 제작된 안장은 '하나님의 양'을 뜻하며 유행도 머금고 있다고 한다. 유행은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3가지 선물 중 하나다. 안장의 빨간색으로 전통적으로 교황이 신는 빨간 신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운동화 제작을 맡은 다니엘 그린버그는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에리조나 아이스티와 아디다스의 콜라보를 생각했다. 그들은 음료회사를 광고하는 신발을 팔았다. 오늘날 풀라보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콜라보는 어떻게 생각했다. 유대인으로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하나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스치프 설립자 가브리엘 웨일리는 "예수 운동화의 재출시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밝혔다.

문화 개방하는 사우디...선교 '청신호'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우디는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49개국에 관광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에는 해외가수 최초로 방탄소년단(BTS)의 스타디움 공연을 허가하는 등 개방·개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성직순례와 선교 전문가들은 "긍정적 신호"라고 밝혔다.

사우디 관광국가유산위원회 위원장 아흐메드 알-카티브는 외국인들에게 관광비자를 발급하면서 "사우디를 개방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사우디 관광비자 발급은 인터넷으로는 10-30분이면 가능하다. 비자 유효기간은 1년이며 체류 기간은 90일이다.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는 무슬림 외에는 갈 수 없고 이슬람 사원도 출입할 수 없다. 공공장소에서 노출이 적은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한다.

A선교사는 20일 "사우디는 무슬림이 아닌 타종교인의 경우 현지에서 살 수는 있으나 공개적 신앙생활이나 사적 모임은 할 수 없는 곳"이라며 "그러나 최근 이슬람 율리주의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균열이 시작됐고 개방이 지속되면 분위기는 이전보다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우디는 1932년 사우드 가문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수니파의 4대 법학파 중 근본주의 학파인 '와하비즘'을 국가이념으로 삼아 건국됐을 정도로 강성 이슬람 국가이다. 하지만 7세기 초 이슬람교가 창시되기 이전까지는 유대교 및 기독교의 교류가 활발했다.

미디안은 성경에 모세가 피신한 땅으로 처음 등장한다(출2:15). 성서고고학자들은 미디안이 지금의 사우디 북서부 지역이라고 본다. 최근 사우디 지도에서는 아라비아반도 북서쪽 지역을 미디안의 아랍식 지명인 마드얀(Madyan)이라 표시하고 있다.

드단은 함의 자손이며 스바의 동생인 드단(창10:7, 대상1:9), 그두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욥의 아들인 드단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했다. 드단은 과거 예멘에서 수리아, 팔레스티인으로 가는 항로길이 지나는 요충지였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아시스 '알 울라'와 동일시 된다. 아카바만에서 남동쪽으로 430km 떨어져 있다.

두마는 이스마엘의 아들 이름으로 두마 자손이 사는 지역을 가리킨다. 두마는 사우디의 '두맛 알 잔달'을 가리킨다. 아라비아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를 연결하는 요충지였다. 데마는 욥이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반박하며 언급한 곳으로 물을 찾으러다 실망했던 대상들의 고향으로 스바와 함께 기록된 곳이다.(욥6:19-20) 데마는 예레미야(25:23)에도 기록돼 있다.

볼리비아 대선 한국계 정치인 돌풍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국계 정치인(49·사진) 후보가 돌풍을 일으켰다. 목사 겸 의사의 활동 중인 정 후보는 예보 모랄레스 현 대통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고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 볼리비아 유권자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다.



야당 기독교민주당(PDC) 소속으로 출마한 정 후보는 20일 열린 볼리비아 대선에서 개표율 83% 기준 8.77%를 득표해 3위를 차지했다. 1위 모랄레스 대통령(45.28%), 2위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38.16%)과 비교하면 표차가 크지만 군소 후보 7명 중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볼리비아 현지에서는 정 후보가 예상 밖의 선전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 후보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오스카르 오르티스 후보에 밀려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현지 언론들은 정치 신인인 정 후보가 4위에 오르더라도 상당한 이변일 것이라고 평가해 왔다. 투표함을 열어보니 정 후보는 오르티스 후보(4.41%)마저 누르고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광주 태생인 정 후보는 12살 때인 1982년 선교사였던 정은실 볼리비아 기독교대(UCBOL) 총장을 따라 볼리비아로 이주했다. 15세에 귀화한 정 후보는 현재 목사 겸 의사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 후보는 볼리비아의 경제 중심지인 산타크루스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사, 교육자, 자선활동가로 명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는 PDC 소속 대선 후보였던 하이메 파스 사모라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후보직을 사퇴한 직후 대권 도전에 나섰다. 좌파 성향인 모랄레스 대통령의 4선 연임을 저지한다는 명분이었다. 정 후보는 정치 경력이 전혀 없었으나 대선에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난 8월 말 PDC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한인이 외국 대선 후보로 지명된 첫 사례였다.

정 후보는 후보 등록 직후 지지율이 1%가 채 되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에 급속히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민감한 사안을 두고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주목을 끈 것도 한몫했다. 그는 이달 초 유세에서 "지난 13년 동안 모랄레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죄를 짓고 있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쉽게도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오는 12월 모랄레스 대통령과 메사 전 대통령이 결선투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결선에서 정 후보의 표가 어느 쪽으로 향할지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

인류 역사는 과학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삶의 질이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세상이 크게 변할 것이라는 예상 내지는 기대 속에서 살고 있다. '변화'가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과학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된다. 과학자들은 사물을 정밀하게 관찰하여 얻은 지식을 토대로 특정 원리를 체계화 한다. 또한 그 이론적 결과를 삶의 정황에 실제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연구를 결치게 된다. 일반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걸치는 동안 수고한 자들에 의해 생겨난 산물을 누리게 된다.

과학이 지닌 힘이 대단하다. 그렇다면 과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렇다. 우리는 그 증거를 중세 말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과학의 발전은 중세의 짙은 어두움을 향해 비치는 강한 빛이 되었다.

인쇄술

산업혁명 및 르네상스와 함께 중세 말기에 찾아온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결정적으로 가속시킨 사건이 있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tenberg, 1398-1468)에 의한 활판 인쇄술의 발명이다. 그는 금세 공업으로 유명했던 마인츠(Mainz)의 하급 귀족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도 돈을 찍는 금속세공업에 종사하였기에, 글자를 금속에 새기는 방법에 익숙해 있었다. 그의 재능과 관심의 결과 세상을 바꿔놓는 인쇄기계를 발명한 것이다.

사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것은 '인쇄술' 자체가 아니었다. 이미 중국에서는 3세기부터 나무를 소재로 하는 '목판인쇄'가 발명되어 사용되었다. 금속활자도 이미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구텐베르크의 결정적 공헌은 어떤 것이었나? 한마디로 기계화된 인쇄술이다.

그는 금속세공에 많은 경험을 지닌 자였다. 주형에 부어 활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확신한 뒤 작업에 들어갔다. 소문자 대문자 알파벳과 다양한 기호와 숫자 활자를 여러 벌 주조할 수 있는 주형을 만들었다. 주형의 바닥에 글자의 모형에 고정시킨 뒤, 녹인 합금을 부어 냉각시키면 글자의 모형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포도주를 짤 때 사용하는 압착기를 이용해 활자판을 눌러 인쇄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나아가서 여러 장의 인쇄물을 한 묶음으로 절단할 수 있는 주형틀도 생각해 냈다.

지식 혁명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의 특징은 대량생산에 있었다. 특정 사상이 인쇄되어 유럽 전역에 속한 시간에 널리 퍼지면서 일종의 지식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나누길 갈망하던 인문주의자들의 활동이 촉진되었다.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지식이 전달될 수 있게 되어, 중산층들에게 글을 배워 지식을 얻는 일에 열망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구텐베르크는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과학자가 아니었다. 과학적 체계에 대한 이론이나 실제에 능한 자가 아니었다.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구텐베르크는 사업에 실패한 장인이었다. 1448년에 마인츠에서 자신의 인쇄소를 개업했지만, 투자자였던 요한 푸스트(Johann Fust, 1400-1466)

결국 1455년에 그의 꿈이 현실로 이뤄졌다. '구텐베르크 성경' 또는 '42 줄 성경'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인쇄본 성경이 완성된 것이다. 전체 2권에 1,282쪽의 분량으로 3년에 걸쳐 180부를 인쇄하였다. 중세의 암흑을 벗어 나게 하였던 지식의 대중화의 중심에 성경이 있었다. 점차 성경의 대중화를 통하여 성경의 지식이 교회의 특권층을 넘게 되었다. 일반인들도 성경을 알고 소유하게 되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향후 16세기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하였던 중요한 역할 중 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과학과 신앙

분명히 과학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중세 말에 발명된 활판 인쇄

과학적 사고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계몽주의를 주도하였다. 인간의 이성과 철학과 함께 인간을 절대적인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다. 신의 간섭을 거부하는 이신론(Deism)이 생겨난 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던 일이었다.

신앙

신앙은 결코 강요될 수 없다. 반드시 특정한 신앙 체계 또는 대상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동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중세시대는 개인의 신앙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교회의 영향력 아래에서 태어나서 자라나 생활하다가 죽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었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학설을 주장한 것이다.

코페르니쿠스는 결코 교회를 향해 반기를 들지 않았던 인물이 아니었다. 어려서 부친을 잃은 그는 가톨릭 교구 운영위원회 회원이었던 삼촌의 도움으로 가톨릭 학교에서 기본교육을 받았다. 1491년에는 저명한 크라쿠프대학에 등록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접하였으며 수학, 천문학, 기하학 등을 공부하였다. 이때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성직자가 되기 위해 1495년 이탈리아 볼로냐대학에서 교회법을 공부하였다. 그는 1503년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은 뒤 참사원 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성당의 미사를 계획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일에 충실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몰두하였다. 그 결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란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과학적 신념과 신앙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대해 논하는 경우가 있다. 그가 과학적 사고를 무시하는 중세교회를 향해 도전하여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묘사하려한다. 물론 중세교회와 함께 그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매우 이론적인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당시 유행하던 천동설로부터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코페르쿠스의 지동설은 향후 요하네스 케플러(Johannes Kepler, 1571-1630)와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 등에 의해 발전되어 사실로 판명되었다. 그 결과 과학적 신념이 신앙을 배격하는 형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중세교회가 지나친 권력을 지녔던 사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현대교회를 포함하여, 교회는 과학조차 무시한 채 신앙교리에 사로잡혀 있다?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진화론이 그렇듯이 과학적 신념 역시 종교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과학과 신앙은 결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를 숙지하는 것을 신앙적 탐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신앙은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한다. 과학은 창조의 신비를 발견하는 도구이다. 교회는 과학의 영역에 무지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세상을 향한 영향력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성경적 숙고가 항상 동반되어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48)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법정 소송에서 패소함으로 사업을 빼앗겨 파산하게 되었다. 다른 인쇄소를 세워

술은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과학은 항상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는가? 이

다. 개인 신앙의 바탕이 되는 진리의 내용보다, 각 개인의 삶을 책임지는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더욱 중요하게

인쇄술 발달로 지식혁명 초래, 16세기 종교개혁 가능케 과학은 창조신비 발견 도구, 성경적 숙고 항상 동반돼야

사업을 계속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과 의지를 통해 세상이 변화된 것이다. 특정인들의 소유물이었던 지식이 값있게 인쇄되어 널리 퍼져나갔다. 그가 인쇄한 책의 서체는 주로 라틴어고딕체였다. 이는 수도사들이 성경을 복사할 때 사용하였던 서체였다. 항상 성경출판을 마음에 두고 있던 그에게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 당시 성경은 오직 소수의 소유물이었다. 평신도들의 손에 성경을 허락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교회의 자제 이외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오직 교회와 수도원에 비치하였던 것은 성경 한 권의 가격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비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텐베르크는 필사본과 베껴가는 기술을 통해 아름다운 고딕문자 성경을 출판하여 싼 값에 공급하려 한 것이다.

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하다.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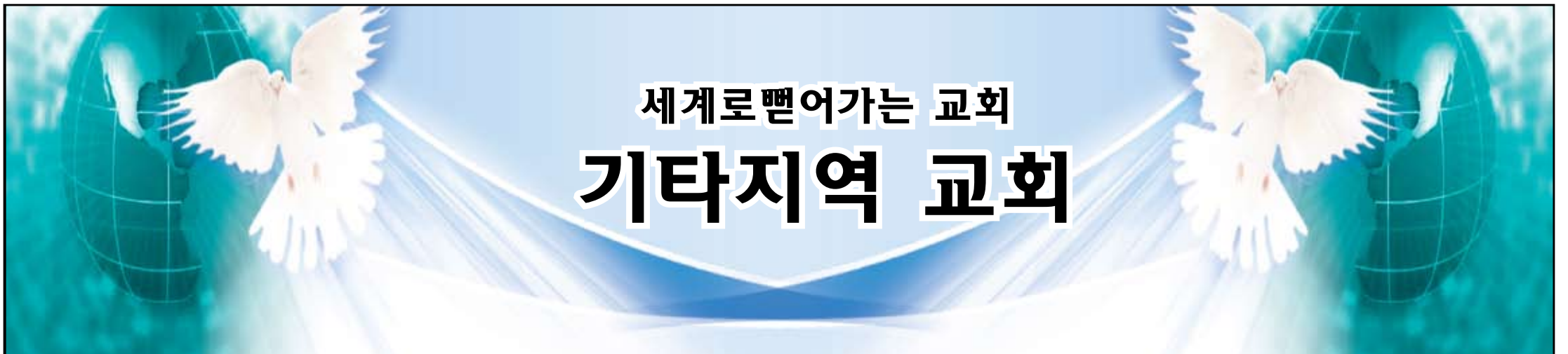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과학과 신앙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다. 심지어 과학과 신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매우 곤란한 입장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공교육은 성경의 진리와 전혀 다른 사실이 근거하여 교육한다. 생물 교과서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친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며, 인간의 존재도 단세포로부터 출발된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신앙인이라면 생물 시험문제에 답을 작성하기 전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과학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도구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은 신앙의 진리를 도전하거나 나아가서 파괴하기도 한다. 실상

여겨졌다. 그러므로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도전하지 않는 것이었다.

중세 말기를 맞아 과학이 발전하면서 서서히 세상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였다. 절대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억압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운이 풀기 시작했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기에 자연히 천동설을 받아들였다.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고대 그리스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Ptolemy, 주전 100-170)의 이론이었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란 것은 매우 보편적인 진리였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 1473-1543)가 지동설을 들고 나왔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with 8 columns and 3 rows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Galbori, Mungo, Bxk, Benel, Boston, Salut, etc.



# 리더십 코멘터리 (98)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을 꿈꿔라

위기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려라

“It's a blessing in disguise”란 표현은 처음에는 좋지 않은 일처럼 느껴지지만 먼 훗날 뒤돌아 봤을 때는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되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기서 blessing은 축복을, disguise는 변장을 의미한다. 번역하면 ‘그건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처음에는 놀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면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좋은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화위복이란 처음에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는 것을 일컫는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 아무리 은혜로운 목회자라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실수하거나 실

연으로 너무 세세한 일까지 간섭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위험한 리더는 도로의 움푹 패인 곳을 바라보느라 정자 도로에서 시선을 떼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요즘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는 “위기는 곧 기회”이다.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더 집중해서 노력하면 위기는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전쟁으로 인해 공포와 불안이 가득하다. 또 경제문제로 인해 큰 위기 가운데 빠져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한치 앞도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위기가 존재해 왔고 인생길에는 수많은

itself.”라는 유명한 말을 세상에 남겼다. 그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확신을 호소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힘을 합쳐 경제 대공황을 잘 극복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모험이다.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을 때마다 우리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다. 모험으로 미지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갈 때, 그것이 현실이 된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것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마침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좌절가운데 경험하는 염려의 벼랑 끝에는 새롭고 다른 차원의 도전과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는 기회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숨을 죽이고, 미지의 희미한 신비의 영역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려설 수 있는 바위와 같이 견고한 반석이 나를 맞이함을 체험하게 된다. 인생이란 모험의 연속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모험이고 염려의 벼랑 끝에는 기회와 성자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성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뛰어난 음악가 베토벤은 원래 피아니스트였지만, 어느 날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인생의 많은 절망과 시련을 겪었다. 그는 청력을 회복하려고, 의사의 권고로 조용한 시골로 가서 전원생활을 시작하며 교향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베토벤은 전원생활을 통해 피아

## 위기는 변장된 축복, 두려움 극복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삶 자체가 모험 미지의 세계 가는 것, 벼랑 끝에 기회 있어

패할 수 있다. 하지만 리더를 따르는 이들은 때로 그에 대한 신뢰가 지나쳐 리더가 어려움에 빠져 있음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거나 애써 무시하려 할 때가 많고, 이는 결과적으로 리더와 커뮤니티 전체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위기와 위험 그리고 실패의 경고음

위험에 빠진 리더는 몇 가지 신호를 보인다. 목회현장에서는 흔히 교회의 동력이 약해지고 압박이 증가할 때 신속한 해결책으로 회의를 계속 열어야겠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너무 많은 회의는 건실한 교회를 지치게 만들고, 신실한 교인들의 의욕을 꺾으며 시간을 빼앗는다. 많은 회의에 시간투자자를 하며 결과를 얻으려는 리더십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성장하는 교회는 뚜렷한 일관성이 있고 교인들은 리더의 비전과 방향을 신뢰한다. 위험한 리더는 우유부단함으로 인사이동을 자주한다. 그것은 불필요한 불안을 조직 내에 유발시켜 리더십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또한 실패한 리더는 결정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날의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창조주의 섭리와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 돌이켜보면 위기를 통해 우리의 삶은 더 성장했고, 위기로 인해 우리 인생은 더 성숙했다. 우리 모두를 좌절케 만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

염려의 벼랑 끝에는 기회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에서 네 번에 걸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탁월한 리더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39세에 바이러스에 감염돼 전신이 마비되는 병에 걸려 휠체어를 의지하는 장애인에 되었으나, 이러한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 국가적인 위기에 경제적 대공황을 겪고 있던 미국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연설을 통하여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뿐이다(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니스트에서 작곡가로 변신해서 9개의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하기에 이른다. 우리가 잘 아는 3번 영웅, 5번 운명, 6번 전원, 9번 합창 같은 곡들은 모두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작품들인가? 베토벤이 교향곡 9번을 작곡했을 때는 완전히 소리를 듣지 못하는 때였지만 그는 자신의 작품을 직접 지휘한다. 연주자 모두 끝났을 때 베토벤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로 들리지 않았고 베토벤은 그의 연주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베토벤은 청중들의 반응을 보기가 두려워 얼굴을 숙이고 있었는데, 그의 친구가 베토벤의 얼굴을 돌려서 청중을 향하게 한다. 그 순간 베토벤은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열광하는 청중의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된다. 만약 베토벤이 귀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렇게 훌륭한 음악들을 작곡했을까? 베토벤은 인생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위기를 위협으로 보지 말고 기회로 바꾸어 인생의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하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 말씨, 말썸, 말투

말은 말인데 누구는 복(福)이 되는 말을 하고 누구는 독(毒)이 되는 말을 한다. 사람이 수없이 내뱉는 말에는 살리는 말도 있지만 죽이는 말도 많다. 그러기에 황장연 신부는 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한다. 씨를 뿌리는 사람(말씨), 기분 좋게 전하는 사람(말썸), 말을 던지는 사람(말투)이 있다는 것이다.

말썸은 말과 다르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이 감동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말썸이라고 한다. 어린 학생에게 “착석하고 멍치구나. 넌 장군군이다.” “넌 말을 잘하네 변호사 되겠구나.” 이렇게 말에 복을 담은 말이 필요하다. 좋은 언어습관은 말씨를 잘 뿌리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전철의 경로석에 앉은 할머니에게 중년여성이 말을 건넸다. “어머! 어쩔 그렇게 곱게 늙으셨어요?” 아주머니가 칭찬을 하는데도 할머니는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다음 역에서 아주머니가 내리기가 무섭게 할머니가 짜증 섞인 어투로 말했다. “그냥 고 우시네요! 하면 좋잖아~ 누가 늙은 거 몰라...” 듣고 보면 그렇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말을 던지는 말투보다는 듣기 좋게 말하는 말씨가 좋다. 그래서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나보다.

프랑스의 작가 장자크 샤프는 자신의 책 ‘뉴욕스케치’에서 뉴욕커들의 긍정적인 말버릇을 관찰했는데 그들은 뻔한 이야기인데도 습관처럼 상대의 말꼬리에 감탄사(!)를 붙이고 물음표(?)를 달아주더라고 했다. 이를테면 누가 “이번에 터키를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요”라고 말을 하자 옆에서 “좋은 곳이지요. 나도 두 번 가봤어요.” 이렇게 말을 받으면 상대는 멋쩍어 일단 말을 주춤하게 된다. 그럴 때 뉴욕커들은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정말요? 어머 좋았겠다!” “일정은 어땠어요?” 하면서 말꼬리를 계속 상대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얼췌~” 같은 주임사로 상대를 신나게 해주는 뉴욕커의 말 습관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는 느낌표와 물음표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을까? 자기를 앞세운 말을 하게 되면 상대의 말에 이러한 부호를 찍어주기가 어려워진다. 돌아보면 느낌표와 물음표가 참 인색했음을 깨닫게 된다. 내가 하는 말에 감탄하면서 나의 감정과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만큼 귀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말이란 다투수록 빛이 나고 향기가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요하다. 말을 할 때 상대의 입장을 늘 염두에 두면 적어도 실언(失言)이나 허언(虛言)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서 덜고 얻는 것도 있다. “어쩌면 말을 그리 예쁘게 하세요?” “복 들어올 말씀만 하시네요.”

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썸들이 성경에 많이 들어있다.

(10면으로 계속)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 교회안내

<p><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fcus@yahoo.com / www.lafcus.com Tel. (323) 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 227-1400 / www.youngnak.com</p>	<p><b>나성제일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213) 388-7101, (F) (213) 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심리(월-금): 오전 5:30 토요일새벽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p> <p>Tel. (562) 691-0691, Fax. (562) 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p>	<p><b>남가주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213)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E.M. Youth예배: 오전 11:20 젊은이예배: 오후 1:20 영양예배(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8: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p> <p>Tel. (310) 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 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p>	<p><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역)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 4부: 오후 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p> <p>Tel. (213) 381-2202, www.mjpac.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p> <p>Tel. (310) 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p><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 854-4010 / be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562)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 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b>열매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p> <p>Tel. (714) 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예배: 오후 7:20(금)</p> <p>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p>	<p><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714) 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전 6:00(토)</p> <p>Tel. (714) 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etc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토요일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p> <p>Tel. 310-370-5500, www.torranceccgo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b>핍(PIM)선교회, G교회</b>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 예배: 10시 50분 민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중기의 정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난 아론의 지팡이에 불이 뿜고 손이 녹아 떨어져 피어삼켜 열매가 되었다.”</p> <p>Tel. 213 924-3340, pmission1004@gmail.com 3944 Wilshire Blvd, LA, CA 90010</p>	<p><b>하늘소망교회</b> 담임목사: 김력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p> <p>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동부교계 게시판

## 뉴욕사모합창단 2019 연주회

뉴욕사모합창단(단장 김경신 사모) 2019 연주회가 11월 10일(주일) 오후 5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지휘 이다윗 목사, 반주 오미혜 사모, 율겐 박에스터와 소프라노 이애실, 밀알기악양상블, 뉴욕목사합창단, 뉴욕장로합창단, 월드미션무용단이 찬조 출연한다.

▲문의: (347)256-6147

## 제 15회 밀알 추수감사절 디너

뉴저지밀알선교단(단장 강원호 목사)이 밀알장애인 쉼터를 위해 주최하는 제 15회 밀알 추수감사절 디너가 11월 30일(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영 권사이며 티켓은 일인당 150달러.

▲문의: (201)530-0355, 638-5148

## '2019밀알의 밤'

뉴욕밀알선교단(단장 김자송)이 주최하는 '2019밀알의 밤'이 12월 7일(토) 오후 6시30분 퀸즈한인교회에서 열린다. Worship Like a Festival 주제로 이번에는 가수 한희준이 초청된다. 한희준은 밀알 봉사자였다가 한국 K-팝 오디션에 참가해 가수가 됐다.

▲웹사이트: nymilal.com

## CBSN뉴욕기독교방송 이전 감사예배

CBSN뉴욕기독교방송(사장 문석진 목사)이 10월 29일(화) 오후 7시 뉴욕 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를 드린다. 만찬 7시, 예배 8시. 새 사무실은 183-22 Booth Memorial Ave 2F1, Fresh Meadow, NY 11365.

▲문의: (347)358-1587

## 브니엘선교회 제 1회 친선탁구대회

브니엘선교회(회장 박효성 목사)가 주최하는 제 1회 친선 탁구대회가 11월 2일(토) 뉴저지한인탁구장에서 열린다. 뉴욕한인탁구협회와 뉴저지한인탁구장이 주교나고 한국일보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개인전 5개 부문과 단체전 3개 부문으로 나눠진행하며 예선전을 거쳐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다. 참가비는 개인 30달러, 복식 60달러.

▲문의: (718)321-2030, (347)622-1980

## 뉴욕크리스천코랄 제 5회 정기연주회

뉴욕크리스천코랄 제 5회 정기연주회가 10월 27일(주일) 오후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린다. 교회음악 명곡시리즈 Vol.2 바하 칸타타 BWV140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록"을 연주한다. 지휘 장효중, 피아노 양정은, 소프라노 장지현, 테너 배정호, 바리톤 김차돌과 뉴욕크리스천 챔버오케스트라가 협연한다.

▲문의: (347)860-0165, (646)915-6034

## 부목사 청빙

뉴욕에 있는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가 풀타임 부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복음주의신학 정규 신대원(M.Div)을 졸업하고 복음주의교단에서 안수 받은 풀타임사역 3년 이상, 이민교회 3년 이상 경험자로 미국 합법체류자, 영어로 기본 의사소통과 사무처리 가능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신대원 졸업증명서, 안수증명서와 소속교단 증명서, 목회자 2인 추천서, 최근 설교영상 2편, 가족사진 등을 이메일(ironpark.kcc@gmail.com)로 보내야 한다. 제출마감은 10월 25일(금).

▲문의: (718)672-1150

## 하크네시야교회 하반기 부흥회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가 다니엘김 선교사 초청 하반기 부흥회를 갖는다. 부흥회 일정은 11월 22일(금) 오후 7시30분, 23일(토) 오후 7시, 24일(주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30분(EM 영어권), 오후 4시30분.

▲문의: (718)229-9191

## CCM 콘서트 "위로"

신현미 & 박수진의 CCM 콘서트 "위로"가 11월 9일(토) 오후 5시 뉴저지 참빛교회(EM Worship Room)에서 열린다. 신현미, 박수진은 한국에서 앨범 활동으로 사랑받고 있는 뉴저지 거주 여성 CCM 싱어송라이터. 티켓은 10달러(현장판매).

▲문의: (732)996-8341

## KAPC 황은영 목사 별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27대 총회장(2004년)을 역임했던 황은영 목사(사신)가 지난 10월 16일 오전 10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장례는 총회장 장으로 치러졌다.

황은영 목사는 1947년 5월 12일 경북 상주 출생으로 향년 72세. 한국 총회신학교와 페이신신학교(M. Div., Th. M)를 졸업했으며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1979-1988)와 뉴저지 안디옥교회 담임(1988-2010), LA 국제개혁신학교(2010-2012)와 개혁장로회대학대학원 총장(2013-2017)으로 재직 한 바 있다. 2019년 3월 뉴욕 동노회 공로목사로 추대됐다.

유족으로는 황옥경 사모와 1남 2녀가 있다. 고 황은영 목사에게는 두 동생 목사가 있는데 황상하 목사(퀸즈제일교회)와 황문영 목사(앤서스트한인교회, MA주)다.

입관예배는 18일 저녁 7시 뉴저지 중앙장사사에서 드렸으며 하관예배는 19일 오전 11시 장지인 뉴욕 파인론(파밍데일 소재)에서 드렸다.

(유원정 기자)



임원선거 후 신규임원들이 기념촬영했다. 왼쪽부터 정순원 직전회장, 양민석 신임회장, 손성대 평신도부회장, 감사 김명철 목사, 김주열 장로, 김기호 목사.

## 46회기 출범 3개월내 임시총회 개최

### 뉴욕교협 제 45회기 정기총회, 부회장 선출위해

<1면에서 계속>

이날 부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데 따라 헌법에 명시된 대로 46회기 출범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열어 부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46회기는 부회장 없이 출발하게 됐으며 곧이어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45회기는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신유축복대성회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성령화 대성회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 △나라를 위한 기도회 △성경해석 세미나 △DNA목회자 세미나 △할렐루야청소년복음화대회 등의 행사를 치렀으며 △기독교자녀 장학금 후원 △극빈자 셀터후원 등을 진행했다.

정순원 직전회장은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성심을 다한 회



2019 청소년 할렐루야대회가 18일과 19일 신광교회에서 진행됐다.

## "RECOGNIZE" 주제, 강사 2명 세위

### 2019 청소년 할렐루야대회 성료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YC, 대표 황영성 목사,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가 주관하는 2019 청소년 할렐루야대회가 10월 18일과 19일 2일간 뉴욕 신광교회에서 열렸다.

"RECOGNIZE(요10:27)"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2명의 강사를 세위 진행됐다.

첫날은 리틀넥에 있는 컨버전스 처치 (Convergence Church) 담임 잔 리 목사가, 둘째 날은 아름다운교회 고등부 담당 사역자인 레이첼백 전도사가 각각 말씀을 전했다.

잔 리 목사는 뉴욕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으며, 10여년의 차세대 사역 후 2017년 교회를 개척했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졸업하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레이첼백 전도사는 LA 출신으로 2010년 뉴욕으로 와 NYU

에서 공공보건학을 공부했으며, 현재 ATS에서 목회학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청소년 할렐루야대회는 지난해 뉴욕가정상담소를 후원한 데 이어 올해는 뉴욕밀알선교단을 후원했다. 첫날은 뉴욕밀알선교단 영상을 소개했으며 둘째 날에는 선교단원들이 참석해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현금 특송도 했다.

올해도 대회 현금과 티셔츠 판매 수익금을 뉴욕밀알선교단에 전달한다.

뉴욕교협은 올해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를 위해 6천 달러를 지원했다.

한편 청소년센터는 오는 27일 오후 5시30분 뉴욕열방교회에서 케리그마남성중창단이 출연하는 후원음악회를 개최한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라마나웃 기도원에서 제7차 조찬기도회를 마친 후 단풍놀이로 하며 기념촬영했다.

## 라마나웃 기도원서 단풍놀이 겸

### 뉴욕장로연합회 제71차 조찬기도회 및 야외회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김영호 장로) 제 71차 조찬기도회 및 야외회가 10월 17일 라마나웃 기도원(Vernon, NJ)에서 열렸다.

오전 8시 프라미스코교회에 모여 아침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24인승 버스로 출발했다. 하루 전인 16일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 곳곳에 홍수가 났고, 당일 은 강한 바람의 예보가 있었지만 비교적 맑고 화창한 일기를 보며 감사했다.

10시30분 기도원에 도착해 곧이어 기도회를 시작했다. 예

배인도는 배상규 장로(친교부회장), 기도 정권식 장로, 말씀 김영호 장로("믿음의 형제", 시 23편), 송운섭 장로의 현금기도 후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쳤다.

김주열 장로 기도 후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나눴다.

회원들은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구경하며 Port Jervis를 경유 델라웨어 강에 이르러 기념사진을 찍고 애플 피킹도 하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기였다"며 "다육 성경과 사랑, 평강으로 이뤄가는 뉴욕교계와 뉴욕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협력과 헌신으로 동행한 목회자와 교회들에 감사"를 전했다.

회계보고는 총수입 137,337.68달러, 총지출 96,224.38달러, 잔액 41,113.30달러로 보고했다.

이어 이사회와 청소년센터 보고가 있었으며 신입회원으로 정숙자 목사(물덴동산교회), 예장국제연합총회와 전인숙 목사(뉴욕은혜교회, UCC)가 가입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양민석 목사 인도로 기도 최창섭 목사, 현금기도 백달영 장

로, 성경봉독 김영호 장로, 말씀 박희소 목사, 축도 김해중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희소 목사(증경회장)는 "인내로 참고 기다리라"(약5:7-1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인내에 대한 속담과 명언들을 소개하고 "인내는 모든 덕의 여왕이며 특별히 목회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사랑의 내용과 골자도 인내이며 적극적으로 이겨 나가는 것도 인내"라고 말했다. 또 "기도도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하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며 인내에 대해 역설했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로신학교 총동문회 제30회 정기총회 1부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 "단합되고 하나 되는 동문회 되길"

### 동부개혁장로신학교총동문회 제30회 총회, 회장 정기태 목사

동부개혁장로신학교 총동문회(회장 이종태 목사) 제 30회 정기총회가 지난 21일 저녁 7시 플러싱 산수갑산II에서 열렸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정기태 목사 △부회장 장규준 목사 △부회장 최미하 전도사 △총무 정인수 목사 △서기 김신정 전도사 △회계 김은숙 전도사 △감사 노기송 목사, 김창렬 목사.

신임회장 정기태 목사는 "신학교가 신임학장(김성국 목사)이 취임하고 이번이 30회기가 되는 등 변화가 있다"며 "위로 증경회장과 선배들을 모시고 격려와 조언을 받아 동문들과 힘을 합쳐 헌신과 충성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 기도와 후원을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으며 폐회기도를 통해 "단합되고 하나 되는 동문회가 되기를" 기도했다.

본 동문회 임원선거는 증경회장단(회장 이원호 목사)이 회장과 부회장(남녀)을 공천하면 총회석상에서 그대로 받는 전통을 갖고 있다. 이번 회기도 그대로 진행됐다.

이원호 목사는 "이번이 동문회 30주년이고 신학교는 33년 됐다"며 "어느 해보다 특별한 해이니만큼 이전까지도 잘했지만 더 잘하는 회기가 되기 바란다"고 격려 조언했다.

회의에 앞서 한 예배는 이종태 목사 인도로 기도 정기태 목사, 성경봉독 최화숙 전도사, 설

교 이종태 목사, 광고 장규준 목사, 축도 이원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태 목사는 "최후의 승자"(고전9:24-2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유연함과 여유를 갖고 인내하는 자가 최후 승리를 한다"며 "인내는 그 뒤에 주어질 것에 확신이 있을 때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 최후의 승자가 되려면 ①상을 받도록 달리는 자 ②분명한 목적을 갖고 절제하는 자 ③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자가 돼야 한다"며 "아직 도달하지 못한 최후의 면류관을 받는 그 길을 가기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경주자로 살아가자"고 전했다.

29회기는 △신학교 장학금 후원(연2회) △동문선교사 후원 △동문주소록 발간 △동문 웹사이트 구축 △신학생과 동문과의 유대강화 사업을 했다.

또 월별 행사로 △총동문회의 밤(1월) △신입동문 환영회(5월) △동문1박2일(7월) △동문야유회(9월) 등을 가졌다.

회계보고는 수입 14,825.26달러, 지출 14,182.91달러, 잔액 642.36달러로 보고했다. 한편 30회기 예산은 18,600달러로 책정됐다.

회의를 마치고 손환권 목사의 만찬기도에 이어 참석 동문들의 자기소개와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유원정 기자)

## 토요칼럼

<8면에서 계속>

"내가 천국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6:19). 말 한 마디

로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는 말씀은 믿음과 공경을 나타내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1:7)는 말씀은 들음에 대한 교훈이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18:21).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잠13:3)는 말씀은 두렵기조차 하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

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약3:2)는 말씀은 인격과 인품이 말에 달려 있음을 증거 한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리라"(민14:28)는 말씀을 통해 말 한 마디의 무게를 다시 깨닫게 된다. 브루스 웰키의 "바보의 혀는 자신의 목을 자를 만큼 길다"는 지적에 소름이 돋기도 한다.

이와 같이 말에 대해 말이 많은 것은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산다 하면 살고 죽는다 하면 죽게 되며, 할 수 있다고 하면 하게 되고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무엇보다 우리가 되지 말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창1:1-3). 아무 것도 없는 무(無)에서 하나님이 이르시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되는 유(有)가 나타나 보이고 만지고 느껴지도록 창조된 것이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말씨가 되고 말씀이 되고 말투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뱉어지는 말에 달려있다.

hanmac@cmi153.org



# ‘성경적 경영과 섬김의 리더십’ 주제

## 제1차 미주한인 CBMC LA대회, 강사 공병호 박사

제1차 미주한인 CBMC 로스앤젤레스 대회가 ‘성경적 경영과 섬김의 리더십(롬12:16)’이라는 주제로 17일부터 19일까지 가든스윗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미주한인 CBMC서부총회(총회장 황선철 장로)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공병호 박사(공병호 연구소 소장)이 주강사로 참여해 강의했다.

첫날 강의에서 공병호 박사는 “성경적 리더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적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성경적 리더십의 본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세상지식이 많고 자리 높고 그런 부분은 허무감이나 불안감을 해결할 수 없다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인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계획은 인간이지만 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수직경영에 충실 하는 삶을 사는 것 △수평 경영에 충실한 자 △지상 사명에 충실한 자 △삶의 굽이 굽이마다 성령의 9가지예매를 체험하는 것 △언제 어디서나



제1차 미주한인 CBMC LA대회에서 공병호 박사가 주제강의를 하고 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알고 정도를 걷는 삶을 사는 것 △성실한 삶을 사는 것 △매사에 작은 것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어느 장소에서나 머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말했다. 공 박사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에 대해 어렵다고 토론했다. 그는 “문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이 한국사회의 야성을 앗아갔으며 정책실패가 대한민국의 어려움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1960년 경

제성장을 위한 전진을 시작한 때부터 2016년까지는 자유주의 길을 달려왔다.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위에 개인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가져왔고 그것은 군부독재시대에도 포함된다”며 “5, 60년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자유주의와 반대되는 길을 달려갔는데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억압적이었지만 경제적으로 자유 확장으로 갔다. 그리고 미국이 엄청난 시장을 제공했다. 자유주의 길을 달려왔기에 짧은 기간 고성장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 하지만 2017년부터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념상 지향점이 변화됐다. 자주적 민족주의, 친북, 우리끼리, 반일, 그리고 민중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병호 박사는 “한국은 건국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나라

일을 맡은 자들은 나라, 국민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을 지킬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도제목에 조국을 향한 기도제목을 만들었으면 한다. 예수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사역의 주인공으로 양성하는 시련의 시간을 주시고 계신다. 생업현장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자라 생각하고 자신의 업무에서 훌륭함을 위한 열정을 지니고 전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대회는 첫날(17일) 오후 6시30분 강승태 총회수석부회장 사회로 개회식 및 예배가 시작됐으며 황선철 총회장이 대회를 열었다. 이어 올림픽밴드 찬양팀의 찬양연주가 있었으며 공병호 박사 주제 강의를 들었다.

둘째 날 오전 김해수 박사가 주제 강연했으며 박영선 부에나팍 시의원이 사역 간증을 했다. 오후에는 최성진 교수가 ‘윤리경영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경영특강을 했으며 박희민 목사(전 나성영락교회 담임)가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주제특강을 하고 공병호 박사가 둘째 날 주제 강의를 했다.

19일 오전 김용민 목사가 주제 특강했으며 제스강 사장이 회원 간증을, 윤여민 회장이 ‘나에게 CBMC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했다. 그리고 오윤호 총회부회장 사회로 폐회예배와 폐회식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뿌리 찾아 떠나는 독립사적지 투어

대한민국회기념재단은 제 80주년 순국선열의 날(11/17) 기념행사로 뿌리를 찾아 떠나는 독립사적지 탐험활동과 견학기행문 공모전을 실시한다. 견학일정은 26일(토) 오전 8시(대한민국회관에서 관광버스 출발, 중기주 다뉴바 리드리 독립문과 독립유공자 공적비 관광, 저녁 7시 대한민국회관 도착)이며 이번 투어는 선착순 100명에 한한다. 참가비는 무료, 준비물은 점심도시락과 개인소지품이다. 공모전은 웹사이트(www.knamf.org)에서 다운로드해 이메일 또는 우편(1368 W Jefferson Blvd, LA, CA 90007)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323)733-7350, 219-0202

## 월드미션대 간호학과 신설기금 후원의 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간호학과 신설기금 후원의 밤을 11월 2일(토) 오후 6시 옥스퍼드팔래스호텔에서 갖는다. 참가비는 100달러(1인당).

▲문의: (213)388-1000

## 글로벌 예배 컨퍼런스

글로벌위십미니스트리 주최하고 베델한인교회가 주관하며 월드미션대학교 후원하는 예배찬양특별세미나가 26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열린다.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컨퍼런스는 세계적인 예배와 찬양가사 탐 크라우터가 강사로 참가한다. 목회자, 교회리더, 예배인도자, 찬양인도자, 보컬, 악기연주자, 예배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선착순 150명에 한해 등록을 받으며 등록비는 80달러(강의안, 식사제공)다.

▲문의: (714)337-4532

## 월드미션대 모래놀이 치료워크숍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7342 Orangethorpe Ave, Suite A-103, Buena Park, CA) 상담대학원에서는 모래놀이 치료에 대한 워크숍이 28일(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열린다. 전화로 사전 등록을 받으며, 워크숍은 월드미션 대학교 OC 캠퍼스에서 진행되고, 회비는 20달러다.

▲문의: (213)388-1000

## 미주장신대 개교 42주년 후원의 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개교 42주년 후원의 밤을 오는 11월 4일(월) 오후 6시30분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새교육관 채플에서 갖는다.

▲문의: (323)227-1400

## 제21회 LA 기윤실 건강교회포럼

제21회 LA 기윤실 건강교회포럼이 서울 기윤실과 합동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도전과 전망, 이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시각과 고민’이라는 주제로 26일(토) 오전 11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대학(3130 Wilshire Blvd, LA) 313호실에서 열린다.

▲문의: (213)387-1207



리뉴얼새힘교회 3주년 창립감사예배 드리는 정달성목사와 성도들. 왼편은 말씀을 전한 이상훈 목사

# “하나님 나라위한 소명가지라”

## 리뉴얼새힘교회 설립 3주년 감사예배

리뉴얼새힘교회(담임 정달성 목사) 설립 3주년기념 감사예배가 10월 20일 오전 11시 은혜가운데 드려졌다.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정달성 목사가 집례를 담당하는 가운데 특송 황태은 집사, 설교 이상훈 목사(미성대학교 총장)로 진행됐다.

이상훈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마6:33)이란 제목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성도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열었다.

그는 “교회가 시스템이나 제도 안에 갇히면 수동적이 된다”며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도 한사람 한사람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한명의 제자를

삼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제자를 삼아 그 영혼을 품고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체가 되고 주역이 된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원형 식탁위에 아름다운 꽃장식과 함께 곳곳에 축제 분위기를 위한 장식들이 눈에 띄었으며 초출하지만 사랑과 따뜻함이 풍성한 감사예배로 드려졌다.

리뉴얼새힘교회는 2016년 6월 12일 정달성 목사와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돼 그해 10월 23일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후 2018년 현재의 예배처소(1636 W. 8th #315)로 옮겼으며 ‘3+1 생명품기 운동’, 전교인 통독, 전교인 수련회, ‘생명책리스트적 기운동’등을 통해 부흥을 위해 온 교인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213)268-9218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나성영락교회 온세대를 위한 집회에서 강사 최정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주제

## 나성영락교회 ‘온세대를 위한 집회’, 강사 최정도 목사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온세대를 위한 집회를 18일부터 20일까지 최정도 목사(주사랑교회 담임)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지명현 목사 사회로 2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 주일 3부 예배에서 최정도 목사가 ‘사람이 있습니까?’(행20:2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정도 목사는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것위해 목숨을 잃는다 해도 조금도 개의치 않겠다는 자기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았을 것이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가?”라며 질문을 던진 후 말씀을 이어갔다.

최 목사는 “우리 인간에게는 의사, 변호사, 기업가 등 바라는 꿈들이 있는데 직업소명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꿈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아라든건 전선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은 동일하게 갖고 있다”며 “크리스천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갈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야 한다. 사

명이 있다는 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제자는 스승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복음의 내용이다. 참된 크리스천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복음의 사건은 하나님, 예수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으로만 이뤄지며 예수그리스도 외에 구원할 이름은 없다. 하지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한다. 가장 소중한 사랑을 행하는 것은 복음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다. 구제는 크리스천이 해야 하는 일이다. 인생가운데 복음이 필요 없는 자는 없다. 세상에 금수저로 태어나 세상적으로 잘나가는 자라도 복음이 필요한 자다. 따라서 어떤 위치에 있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 ‘밀알의 밤’

## 11월 1-3일 3곳서...지누선의 선초청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목사)에서 매년 개최하는 밀알의 밤이 11월 1일(금)부터 3일(주일)까지 ‘지누선의 선’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다.

밀알의 밤을 통해 모금된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며 2001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에게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을 수여하기 위해 시작돼 지금까지 2,387,000달러를 지급해왔다. 올해도 미주 장애인장학생 9명과 근로복지생 3명, 꿈나무장학생 38명, 제3국 및 북한 장학생 10명, 장애인 선교사역자 육성장학금 20명, 긴급지원대상 추가기금 10명 등 총 90명에게 153,2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금년 밀알의 밤에 초청된 SEAN은 한국 최고의 합창

가수이며 기부천사, 나눔 아이 콘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는 1997년 힙합 듀오그룹 ‘지누선’을 결성 가수로 데뷔해 여러 히트곡을 발표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아내 정혜영(배우)씨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기부활동을 활발히 펼쳐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과 ‘루게리요양병원’의 설립에 기여했고 ‘대한민국 운도 올리기’라는 연탄봉사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한국 사회에 따뜻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행사일정은 11월 1일(금) 오후 7시30분 은누리교회, 2일(토)오후 7시 남가주새누리교회, 3일(주일) 오후 7시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각각 열리며 입장료는 15달러. 티켓 구입 및 문의는 (562)229-0001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 물댄동산장애인선교회에 후원금 전달

## 제7회 대광OB코랄 콘서트... ‘그의 길을 따르라’

제 7회 대광OB코랄(단장 한영) 콘서트가 남가주 대광중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정호승) 주최로 20일 오후 6시 바이올라대학교 크로웰-랜싱 리사이트홀(13800 Biola Ave La Mirada)에서 ‘그의 길을 따르라’라는 주제로 열렸다.

엄미나 아나운서(우리방송) 사회로 열린 ‘그의 길을 따르라’, ‘주유성 외에는’, ‘Sing Your Way Home’ 등 성가곡을

아카펠라로 불렀으며 작곡가 이호준 박사의 편곡으로 탄생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대광OB코랄 위촉곡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가 불려졌다.

또한 ‘어쩌다 마주친 그대’, ‘사랑밖에 난 몰라’가 불려졌을 때는 단원들의 포퍼먼스가 유쾌하게 펼쳐져 이날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제7회 대광OB코랄 콘서트가 바이올라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연주회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 소프라노 신선미 씨가 특별 출연하여 이날 콘서트를 빛내줬다.

한편 이번 연주회로 조성된

기금은 물댄동산장애인선교회(대표 박수찬 권사) 후원금으로 전달됐다.

(박준호 기자)



## “인권위법 ‘성적지향’ 문구 회기내 삭제해야”

기공협 등 내년 4월 15일 폐회 20대 국회에 촉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삼복 목사·전용태 장로, 상임대표회장 이수훈 목사), 한국교회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회장 임진 장로)가 한목소리로 국회에 “동성애 옹호 및 동성혼 합법화 우려를 낳는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3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 문구를 제20대 국회 회기 내에 삭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도 뜻을 함께했다.

20대 국회는 내년 4월 15일

## “교단 화합·선한 영향력 확대 위해 노력”

예장합동 소강석 부총회장 취임감사에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중준 목사) 제104회 회기 소강석 부총회장 취임감사예배가 16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진행됐다. 감사예배에는 예장합동 전 총회장들과 총회 임원, 산하 기관장 등 교단 지도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소 부총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소 부총회장은 “교단을 화합하고 바른 방향으로 세워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예장합동이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해 반기독교적 시류와 풍조를 차단하고 한국교회의 회복과 선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준 총회장은 “위대한 지도자의 덕목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지도자를 세워 당신의 꿈을 이뤄가신다”며 “소 목사가 모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끝으로 폐회된다. 이들은 14일 여야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문구가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자의 인권과 평등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정부가 친동성애 정책을 펴게 만들며, 동성애 반대자를 공권력으로 규제하는 등 역차별로 동성애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해당 문구를 삭제, 개정을 요구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오직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예배에서는 서기행 전총회장, 이건영(인천제2교회) 배광식(울산대암교회) 오정호(새로남교회) 박춘근(남부전원교회) 김관선(산정현교회) 목사 등 교단 인사들이 격려사와 축사, 특별기도자로 나서 새로운 총회 회기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전했다. 주요 순서를 마친 뒤 소 부총회장은 종신대 정상화를 위해 이재서 총장에게 특별 격려금을 전달했다.

것”이라고 전했다.

기도 대성회에는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한국 및 세계교회의 회복, 부흥을 바라는 외국 목회자들의 간절한 기도도 이어졌다. 파나마 호산나인터내셔널미니스트리 에드윈 알바레스 목사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고 성령을 따라 살며,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자”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뉴제너레이션교회 안드레이 티코코 목사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을 예수께 보일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겨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축사를 전해왔다. 문 대통령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는 덕분에 각종 위기를 극복하며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지금은 한반도와 우리 사회에 기도의 힘이 필요한 때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성경 말씀대로 모든 국민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서로 분열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해법을 찾도록, 주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전했다.

## “신앙 전수, 교회보다 부모가 주체돼야”

백석대 ‘개혁주의생명신학 포럼’ 차세대 복음화 전략 제시

백석대 백석정신아카데미는 21일 서울 서초구 캠퍼스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 포럼’을 개최하고 저출산 고령화 상황과 한국교회의 위기를 분석하고 다음세대 신앙교육 방안을 제안했다.

임석순 서울 한국중앙교회 목사는 “교회마다 거듭나지 못한 명목상 그리스도인, 교회 출석은 하지 않고 등록만 한 교인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설상가상 교회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분위기와 영적 환경마저 나빠지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임 목사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낙태와 동성애 문화가 장광하는 한국사회의 흐름을 보면 산아제한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하려 했던 바로의 예금문화, 반생명 문화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명기 6장 말씀을 제시하며 한국교회 3세대 지도방안을 제시했다. 임 목사는 “지금의 위기는 목회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질만 회복하면 된다”면서 “우리의 미래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지 말고 경외하며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따르라’는 신명기 6장 말씀은 이스라엘 2·3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자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김은호 서울 오륜교회 목사는 교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원 포인트 통합교육’을 소개하고 다음세대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목사는 “저출산·고령화,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교회재정 감소, 교회 학교 학생 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기고 방관하는 가정에서 다시 신앙전수 기능을 회복하려면 신앙교육의 주체가 부모라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오륜교회는 교육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전 세대가

## 항일투쟁사 ‘북간도의 십자가’ 개봉

3·1운동 100주년에 돌아보는 기독교 무장투쟁 영화화

현재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일대인 북간도에서는 3·1운동 이후 가장 큰 만세운동인 용정 3·13 만세운동이 있었고 봉오동·청산리 전투 등 항일 무장 투쟁이 펼쳐졌다.

오는 17일 개봉하는 영화 ‘북간도의 십자가’는 북간도에서의 항일 투쟁 중심에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를 주목한다.

영화는 3·1운동에 기여했던 기독교인들이 당시 인구의 불과 1.5%에 불과했다는 사실부

한 본문을 갖고 한 주에 ‘원 포인트 학습’을 하며 6년 동안 성경 전체를 다루도록 한다”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72개 기독교 덕목 교육, 세대통합 커리큘럼, 가정예배, 세대대화 부모와 자녀세대 간 원활한 영적 소통을 위한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종현 백석대 총장은 “신학교에선 신학을 단순 학문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학문에 가두고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다 보니 선교 130여년 만에 다음세대가 현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위기상황에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터 짚는다.

그 후에 벌어진 북간도의 3·13 용정 만세운동에는 3만여 명이 모여 만세를 불렀다. 그 자리에서 북간도 일대의 기독교 등 종교 지도자 등 17명이 ‘독립선언포고문’을 발표했다.

일제의 지배가 한층 더 악랄해진 이후에도 북간도의 기독교인들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힘썼다. 윤동주, 문익환, 강원용, 송몽규, 문동환, 안병무 등이 배출됐으며 이들은 이후

## 교단장회의 ‘인권위법’ 개정 논의

12개 교단 신임 총회장 참석 인사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1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례 모임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등 교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류정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교단장회의에선 김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이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회와 노

회, 연합기관 차원의 동참을 요청했다.

길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내 성적지향 조항이 동성애 확산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조간간 이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교단장들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을 만나 적극 설득해 달라”고 부탁

## 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은 위법”

점용허가올해 말 종료…교회 측 연장 안되면 이의 제기

대법원이 17일 도로 지하에 사랑의교회 예배당을 건축한 것이 서울 서초구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랑의교회는 입장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8년간 서초구청장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대법원 3부는 황오씨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사랑의교회가 서초구 서초동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시작했다. 교회는 교회 후면의 참나리길 도로를 점용하면서 교회 일부 시설을 기부채납했지만 주민소송대처위는 교회의 도로점용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11년 ‘사랑의교회 신축허

가 불법 의혹에 관한 감사청구 시민운동’을 전개했던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6년 대법원이 건축허가 취소는 기각하고 도로 지하점용 허가에 대해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다. 환송심은 기존 판결을 깨고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번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교회는 도로 지하 2.5m 이하만 점용해 지상에서 불면이 초래되지 않고 참나리길 주변을 매입해 확장·포장한 뒤 기부채납해 도로의 폭이 오히려 넓어졌다고 소송과정에서 항변했다. 지하점용에 따른 주민 반대나 시위,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고 교회 시설을 지역 주민을 위한 공적 공간으로 개방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아베, ‘대동아공영권’ 주장 독재자의 길로”

제5회 크리스천리더스포럼, 호사카유지 세종대교수주장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1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며 독재자의 길을 가려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제5회 국민일보 크리스천리더스포럼(CLF·회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에서다.

대동아 공영권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침략 전쟁에 나서며 내세운 정치 슬로건이다. 포럼에는 교계 지도자를 비롯해 경제·법조계 기독교인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호사카 교수는 시종 단호한 어조로 한국이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 일본의 야욕을 꺾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태생인 호사카 교수는 귀화한 한국인으로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지속해 비판해왔다. 일본 극우세력에게 ‘비국민’ ‘매국노’ 같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최근엔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트리려 하는가’(지식의숲)를 펴내 아베 정권의 야욕을 정조준

독립운동뿐 아니라 해방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에도 큰 발자국을 남겼다.

젊은 역사학자인 심음환 작가와 지난 3월 별세한 문동환 목사의 시선이 교차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심음환 작가는 북간도 곳곳에 숨겨진 항일 독립운동의 흔적을 따라가며, 항일 무장투쟁에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문동환 목사의 조각인 배우 문성근이 문 목사 시점에서 내레이션을 했다.

반태경 CBS PD가 연출, 김어흥 작가가 내레이션 집필을 맡았다. CBS TV에서 방송됐던 내용을 영화 버전으로 편집했다.

했다.

이어 “한국교회의 동성애 공식 대책기구인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가 주요 교단 현지 총회장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면서 “초·중·고등학생과 청년을 동성애 예방 교재를 보급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유재철(기독교한국침례회) 신수인(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문수석(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육순종(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등 12개 교단 신임 총회장이 참석해 인사했다.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사랑의교회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서초구청이 허가한 점용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연장되지 않으면 행정적·사법적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회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면서 “교회는 구청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고 영구시설물까지 만들었는데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것은 재산상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기에 적절치 않고 법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 시내만 해도 대기업 본사와 백화점 호텔 등이 건물과 건물을 잇기 위해 지하 도로를 점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면서 “기부채납까지 했는데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특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구삼 서울 충현교회 목사는 ‘진주 장사와 진주’를 주제로 설교했다. 그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원리와 함께 구원 받은 우리가 또 다시 복음의 전도자로 나서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 목사는 “마태복음 13장 44-46절에서는 천국의 원리를 비유로 설명하는데 교인 각자가 일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천국을 발견한 자가 이를 가져가지 않고 묻어두고 돌아가면서도 사라질까 노심조사하는 모습을 통해 천국을 찾은 자만의 기쁨을 엿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천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쁨으로 가는 천국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기쁨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묻어 두고 돌아가도 편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주장사이며 우리는 진주’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예수님은 탁월한 안목으로 진주를 구입하는 진주장사인데 모든 걸 땅망 팔아 진주를 산다고 했다”면서 “우리를 사랑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본문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뒤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걸 팔아 진주를 사는 진주장사의 모습과 같다”면서 “구원받은 우리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진주를 사 구원의 길로 안내하자”고 권했다.

차기 포럼은 12월 19일 열린다. 김운성 서울 영락교회 목사가 설교하고 김영훈 CLF 회장이 간중한다. CLF는 각계각층의 크리스천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돼있다.



# 선교의 창 (133)



송종복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 마음 둘 곳 없는 비운의 쿠르드족

쿠르드족은 누구인가? 인구 3,20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나라 없는 유랑민족이다. 그들은 지난 1세기 동안 서구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며 이들로부터 협력과 배신을 경험했다. 이 민족은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으로 나뉘어 강제동화와 차별정책에 맞서 치열한 생존투쟁을 해오고 있다. 지금 중동에서 쿠르드 문제는 팔레스타인 분쟁 문제와 더불어 가장 첨예한 갈등의 핵이다. 세계는 알아야 한다. 쿠르드족을 방치하고 중동에 과연 평화가 깃들 수 있을까?

### 1. 쿠르드족의 현황

쿠르드족은 터키 동남부, 이라크 북부, 이란 북부, 시리아 동부 접경의 약 30만km<sup>2</sup> 산악 지대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전체 인구는 CIA 2015년 추정치로는 3,000만 명이며, 프랑스 파리의 쿠르드연구소의 2017년 추정치는 3,640만~4,560만 명이다. 쿠르드족 전체 인구의 45%는 터키에, 24%는 이란에, 18%는 이라크에, 6%는 시리아에 있다. 중동에서는 아랍인, 터키인, 페르시아인 다음으로 많다. 종교는 대부분 이슬람교 수니파이다. 언어는 인도유럽어족 이란어

파에 속하는 쿠르드어를 독자 언어로 사용한다. 주된 생업은 목축으로 중동 외의 다른 민족과 같이 유목민으로서 생활해 왔다.

쿠르드족은 종교가 아닌 사용 언어와 문화로 정체성을 찾는다. 이 민족은 독립국가 아닌 유랑민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중동정책과 연계되면서 환원적으로 주변 나라들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오고 있다. 그들은 소수민족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동화되기 보다 분리되는 것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핍박을 받으며 대립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양상은 국가 대 민족이데올로기 대결과 영토회복주의(irredentism)와 분리주의(separatism)의 프레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

### 2. 쿠르드족의 역사

쿠르드족은 한 번도 독립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항상 여타 나라에 종속돼 있었다. 그들의 터는 중세부터 근대에 걸쳐 광대한 영토를 유지한 오스만제국의 자치구인 쿠르디스탄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은 오스만제국을 쓰러트리기 위해 독립 국가를 세워준다는 약속을 하고 쿠르드족을 끌어들이었다. 문제는

1920년 세브르 조약에는 쿠르드족이 사는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에 쿠르드 국가를 만든다는 구상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를 대체한 1923년의 로잔조약엔 독립 내용이 빠져나갔다.

결국 쿠르드족은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만들어진 자의적인 국경선에 따라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아르메니아 등에 분단되게 된다. 이후 분리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왔으나 자체 민족주의 세력이 단합하지 못한 연고로 독립에 실패한 채 지내왔다. 특히 주변국들이 쿠르드족의 독립을 절대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은 이 민족의 규모가 너무 크고 그 거주지가 하필이면 석유산지와 겹치는 곳이 많다는

르드는 강했다. 시리아·이라크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들은 IS와의 전투에서 잇따라 승리했다. 사방으로 뻗던 IS의 기세가 단박에 꺾였다. IS는 막판까지 뱅크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미로 같이 복잡한 주택가에 배수진을 쳤다. 이러한 적을 무찌르려면 육탄전을 벌여야만 했다.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역할을 쿠르드가 도맡았다.

쿠르드가 애초 전쟁에 나선 건 IS가 이들 마을까지 쳐들어와서 이기기도 하지만 그보다 이 위기를 민족독립의 기회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동 외교가와 전문가 사이에서 쿠르드가 IS 격퇴 임무만 잘 마치면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독립 국가를 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무산시킨 희망 고문을 모두 포함한다.

2019년 10월 6일 시리아 동북부에 주둔했던 미군의 철수는 쿠르드족을 배반한 8번째이자 최신 사례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미군을 철수시킨 것은 적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동맹들에게는 고통만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여파로 마수드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의 수반은 "의지할 친구는 또다시 산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사임했다.

아무튼 쿠르드족은 2014년부터 서방을 대신해 IS 격퇴전장을 누비던 1만1000명 이상이 희생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들에게 독립국과 자치권이라는 과실 대신 주변 열강의 역공이라는 냉엄한 현실만이 돌아오게 된 것이다.

가들은 정치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그것은 쿠르드족의 문화적 동질성 보장에서 출발해 민족적 자치를 이루게 하고 무장투쟁 종식과 상호 불가침 협약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도록 단계적인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다. 저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 하나님의 선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은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이라크와 시리아의 쿠르드족이 독립하여 나라를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다. 미래는 우연히 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 맺음 말

동물의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힘센 놈이 장땡이다. 인간의 세계는 어떠한가? 유구한 역사를 돌아보면 개인과 집단을 떠나 역시 "약육강식"이란 힘의 논리가 지배해오고 있다. 그래서 역사는 강자의 편에서 기술될 수밖에 없다. 약자를 배려하고 같이 공존하는 선한 사회는 요원한단 말인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마저 동물세계의 지배법칙에 예외라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자고로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는 법이다.

이때에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점에서 미국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축복이 큰 만큼 사명도 크다. 미국은 자체 우선주의(America First)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신의(信義)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해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힘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것은 특권이며 축복이다.

jsong007@hanmail.net

## 쿠르드족은 2천 5백 년간 나라 없이 유랑하며 살고 있다.

## 저들도 한 터전에서 자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 우리는 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안목을 의식하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유도 있다. 더구나 만일 저들이 독립할 경우 타 민족도 분리 독립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침내 IS 격퇴전은 승리로 끝났고 그 주역은 단연 쿠르드였다.

### 4. 冤死狗烹(토사구팽)된 쿠르드족

쿠르드족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강대국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 100년간 쿠르드족을 최소한 8차례 배신했다고 미국 온라인 뉴스매체 "더 인터셉트"가 최근 보도했다. 여기에서 배신(Betray)이라는 용어는 쿠르드족을 사자의 입 안에 던져준 일, 쿠르드족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목인한 짐승, 그리고 독립 가능성을 열었다가 이를

### 5. 쿠르드족을 향한 근본적 대책

이 민족은 2500년간이나 여타 민족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왔다. 그만큼 자기 정체성과 문화를 지닌 채 독립을 갈망해 왔다는 증거다. 이제 세계는 넓은 시각으로 저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존과 화해를 부르짖는 21세기의 길목에서 인류사회가 자기 말과 글, 원근 초적인 민족문화를 거부당한 3,200만의 인류집단을 방치한다는 것은 인류문명에 대한 명백한 오점이다.

이제 서방과 저들을 소수민족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변 국



## 드라마 신약 (7)



김덕수 목사 (생터사역원 LA지부장/하늘소망교회 담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막절, 수전절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유월절이 있던 그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과 이어지는 월요일,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의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보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심(마21장, 막11장, 눅19장, 요12장)

예수님께서서는 처형되시기 5일 전 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마 21:9, 막11:10)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예수님께서 주실 평화는 달랐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슬퍼하며 우십니다(눅19:41-44).

### △월요일-성전 청결

월요일 아침,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하셨던 것처럼 다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엮으셨습니다. 안나스의 영업장소로 전락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실 때, 성전에 있던 각종

환자들-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마 21:14).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마치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의 상태를 이 환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그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통하여

## 마지막 일주일(1) 종려주일부터 화요일 오후까지

### 3가지 비유로 유대인 죄상 폭로...세금, 부활, 신학논쟁에서 승리하심

여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의미를 담고 있는 뜻합니다.

### △화요일 아침

화요일 아침,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성전으로 들어가시다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마21:18-23).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역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는 '세례 요한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이해해야 세례 요한 뒤에 등장하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받게 되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일순간에 불순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대답은 "모른다"(마21:27)였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서는 저들의 실체를 폭로하시는 세 가지의 비유(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농부 비유,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죄상을 폭로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정죄했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이유는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

신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던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로마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서는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과 같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이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카운터펀치를 날리십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했니? 네 생각에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여겨지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만일 네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지면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의 논리에 1번 타자였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이 논쟁에서 패배하여 Out되었습니다.

2번 타자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논쟁의 이슈는 '부활'이었습니다. 이스

니다. 율법은 613개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고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면, 나머지 612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이"라는 표현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똑같은 하나의 계명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라고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은 율법사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3번 타자 바리새인의 율법사도 Out!

### △그들을 KO패 시킨 예수님의 신학(마 22:41-46)

이제는 예수님의 공격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득달같이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틀렸습니다!"였습니다. 그 근거로 다윗이 지은 시편 110:1("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을 제시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은 왜 자신의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불렀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신학에 완전히 KO패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께서서는 7번의 저주심판 발언(마23:13-36)을 하십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주께서 일곱인을 때시며 심판하시는 장면을 미리 보는 듯 합니다.

이렇게 화요 신학논쟁은 예수님의 완승으로 끝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신학논쟁이 끝난 후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licant에 이르러서 하심당 감람산강론과 목요일에 이어지는 다락방강론, 그리고 포도나무 강론에 이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 후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현장으로 함께 가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눅22:1).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은 '신학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여야 할 명분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신학논쟁을 걸어옵니다(마22:15).

### △화요 신학 논쟁(마22:15-46)

먼저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제자들을 해투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들의 질문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금은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나의 주권이 세금을 받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라고 대답하신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인이

라엘의 '고엘제도'를 들어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만일 칠형제가 있는데 큰 형님이 결혼 후 자녀 없이 죽어서 그 형수를 둘째가 취하고, 둘째도 자녀 없이 죽어서 그 형수를 셋째가 취하고...마지막 일곱째가 그 형수를 취하였다면 부활 후에 그 형수는 어느 사람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2번 타자 사두개인들도 아웃(Out)!

사두개인들도 신학논쟁에서 꺾이지 않고 예수님께 패배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신학과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율법사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큼이냐?"라고 질문합



### 선교 편지 아르헨티나

살림!  
PATAGONIA(CHOELE CHOEL, ARGENTINA)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우진 선교사 가정입니다.

CIVIS라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교회와 함께 교회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올바른 교육이 세워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생소한 개념이고 비영리단체로 선교하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기에 이곳에서도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거의 막히다시피 한 공교육 안으로 복음을 갖고 가는 일도 점점 어려워질 뿐 아니라 신앙을 갖은 현지인들을 봉사자로 더 나아가 사역자로 키워내는 일에 교회의 열린 마음을 얻기도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지만 봄이 시작된 이곳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사무실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무실 없이 6년 동안 집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저희 가정의 사생활이란 게 없어 늘 바닷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라”(히브리서 10:36).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참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인내하며 그분의 때를 소망하며 나아가십시오.

부활절 계란 만들기(ACTIVIDAD DE PASCUA)



이곳엔 부활절을 기념하기 보다는 바캉스라는 개념이 더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름캠프를 통해 만난 주일학교 교사들을 초대해서 부활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종려주일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순서대로 간단하게 이미지로 나타내어 말씀 카드와 함께 계란장식을 할

수 있도록 활동교재를 만들어 나누었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을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알리고 아이들이 말씀을 창의적으로 표현해 보며 부활절의 의미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일이라 한정된 개수의 재료를 준비해서 배포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엔 더 많은 주일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기증 (ENTREGA DE JUEGOS INFANTILES)



한국인 첫 이민자들을 위해 아르헨티나에서 지어준 학교 #237(한국인학교)에 드디어 놀이터를 기증하였습니다. 재야 한인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후원자와 주문제작할 공장을 찾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운반하고 설치하기까지 모든 과정마다 매번 힘든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놀이터 기증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더욱 많은 이들을 참여케 하는 일이 더디 걸리고 힘들더라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함께 뜻을 모아준 후원자와 봉사자들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울리자마자 놀이터로 향해 힘차게 뛰어가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든 수고들이 기쁨으로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019 어린이날 행사(Día del Niño)



금년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시청이 주관하고 CIVIS가 안장비와 봉사자 그리고 부스 하나를 맡아서 모든 액티비티가 끝나는 지점에서 아이들 한명마다 준비한 성경

책을 나눠주었습니다. 아쉽게도 액티비티 사역(AVENTURA)자로 세우기를 힘썼던 에두아르도가 시청과 협력하게 되면서 잠정적으로 사역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역의 재정비를 도모해야겠습니다.

#77학교에 장화 전달 (Huella de Cristo) 이곳 rural지역인 Paso



Piedra에 위치한 초등학교 #77학교에 장화를 전달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Chimpay라는 지역의 학교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기도하던 중 이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하되 열리지 않는 학교들을 위해 기도하며 순차적으로 나아가기로 방향을 우회하였습니다.

미국 방문에서 얻은 조언대로 이제부터는 가급적 저희가 뒤로 물러나고 현지인 CIVIS 회원들이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하고 이번 장화전달부터 시행했습니다. 장화 후원 및 필요장구 구매와 준비 및 학교와 교회 봉사자들을 코디네이트하는 역할들이 생전 처음이라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들로 행사진행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더딘 힘든 사역의 과정 속에서 저희를 포함해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때로는 충동로 인한 꺾임도 주시며 더 나은 모습으로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역을 통해 장화 후임자, 선물을 받는 학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느끼게 하실 뿐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한 영혼들을 만지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현지인들을 세우는데 더욱 힘써서 그들이 CIVIS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일은 더디 걸리고 몇 배의 수고가 더해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실 계약(Oficina de CIVIS)

작년 12월 무렵에 사무실을 계약하려고 했지만 주인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다시 9개월을 기다린 끝에 사무실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이라 저희의 조건에 맞는 사무실을 구하기도 참 어려웠지만 이젠 드디어 CIVIS만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봉사자들이 지난주에 낡은 카펫을 뜯어내고 세라믹 타일 시공 중입니다.

아직 준비할 것들이 많지만 분명 오랜 기다림 끝에 허락해주신 공간이기에 앞으로 이곳에서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물품들과 장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찬 유치원 설립 (JARDIN CRISTIANA)

이곳에 크리스천학교가 전혀 없어서 현재 CIVIS를 중심으로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함께 크리스천 학교 설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매주 2번씩 각 교회에서 대표로 이 프로젝트를 놓고 한명씩 나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설문지를 통해 예상되는 학교 등록인원을 파악해 보고 장소를 알아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치원(JARDIN)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와 준비가 필요하고 또한 교회가 연합되어 나아가야 하기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곳에 세워지는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바른 크리스천 세계관을 심어주고 점점 심각하게 무너져가는 성경체성에 대한 공교육의 폐해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사역내용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fundacioncivis/)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civisargentina@gmail.com

### 원로칼럼

#### 종교개혁인가? 교회개혁인가?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바르크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교회 개혁을 시작하니 금년 502주년이 되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불렀고, 이 명칭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교회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교회나 신학계에 통용되는 말이 되어 왔다. 그런데 필자는 금년 '종교개혁 502주년'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교회개혁 502주년'으로 썼으면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16세기까지 유럽의 종교란 거대한 조직인 로마 가톨릭 밖에 없었기에 종교개혁이란 말이 곧 교회개혁이란 말과 동의어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 사는 한국교회에서 종교개혁이란 용어는 그리 적절치 않다는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근자에 에큐메니칼 운동의 방향은 교회연합을 넘어 종교통합으로 가고 있다. 즉 모든 종교는 근본 목적이 같고 무슨 종교를 믿든지 결국 같은 신(神)을 믿는다는 식의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 서구 학자들은 신학자체를 '종교학'으로 취급하고 있다. 에큐메니칼 신학 자체가 종교의 신학(Theologia Religionis)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즐겨 쓰던 종교개혁이란 말이 본래의 뜻과는 빛이 바래어 저서 기독교회도 모든 종교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

둘째로, 영어로 Reformation은 본래의 형태로 다시 회복한다(Ad Fontes)는 뜻이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다. 즉 성경적, 사도적 교회로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다. 미국의 저명한 칼빈신학자 존 헷셀링크(John. I. Hesselink)박사는 Reformation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본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것(Reformed according to the Word of God)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이란 말 보다 교회개혁이란 말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셋째로, 개혁자 칼빈에 대한 옛날 문헌을 찾아보니, "칼빈은 교회의 개혁자"(JEAN CALVIN, Reformateur de L'Eglise)라고 썼다. 칼빈을 가리켜 "제네바 교회의 목회자", "목사", "신학박사", "제네바의 신학자", "교회의 박사" 등 다양한 명칭이 있다. 그 중에서도 교회의 개혁자 칼빈이란 명칭이 돋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칼빈의 개혁은 종교를 새롭게 변화시킨 분이시기보다는 16세기까지 성경에서 멀어지고 비성경적 교리와 온갖 거짓된 미신들을 끌어 들여 교권을 지키려던 로마가톨릭교회가 거짓된 줄 알고 교회를 교회되게, 말씀을 말씀되게, 은혜를 은혜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루터와 칼빈의 개혁운동을 종교개혁이라고 하기보다 교회개혁이란 말이 더 옳다고 본다.

넷째, 한국교회의 신학용어들은 대개가 일본 신학자들이 사용한 것을 그대로 채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종교개혁(宗教改革)이란 용어는 일본식이므로 이를 교회개혁(教會改革)으로 바로 고쳤으면 한다. 과거 식민지 통치시절 일본에서 유학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일본용어를 거의 그대로 가감 없이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 목사를 일본식 표현으로 칼빈 선생으로 굳어진 것도 그 때문이라고 본다.

금년은 교회의 정체성을 두고 혼란에 빠져 있다. 우리는 안팎으로 도전하는 세력들, 즉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종교 다원주의에 맞서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개혁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과 사명이라면 종교개혁이란 용어보다 교회개혁 502주년을 기념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줄 안다. 그러므로 교회개혁이란 말이 교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더욱 타당한 줄 알고 감히 제안하는 바이다.

skc0727@yahoo.com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는 34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신학대학(원)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D.Min.**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b>ESL Program</b>	Certificate Program
<b>Bachelor Degree Programs</b>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chelor of Music 음악학 BA In Theology 신학(성서신학, 기독교교육)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b>Master Degree Programs</b>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ster of Music 음악학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b>Doctoral Degree Programs</b>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Doctor of Musical Arts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리더십철학박사 Ph.D. in Counseling 상담철학박사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u.gov/accreditation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 영어로 보는 성경 (40)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 Zechariah 9:9, 10

9) Rejoice greatly, Daughter Zion! Shout, Daughter Jerusalem! See, your king comes to you, righteous and victorious, lowly and riding on a donkey,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10) I will take away the chariots from Ephraim and the warhorses from Jerusalem, and the battle bow will be broken. He will proclaim peace to the nations. His rule will extend from sea to sea and from the River to the ends of the earth. (NIV 2011)

### WORD & IDIOM

\* rejoice: 기뻐하다 \* righteous: 의로운 \* victorious: 승리한 \* lowly: 낮은, 하찮은 \* riding on ~: ~을(를) 탄 \* colt: 망아지, 어린 나귀 \* foal: (당나귀) 새끼 \* take away A from B: B에서 A를 없애다, B에서 A를 가져가다 \* chariots: 병거(들) \* warhorses: 군마(들) \* rule: 통치, 지배 \* extend from A to B: A에서(로부터) B까지 이르다, 확장하다.

### GRAMMAR

9) Rejoice greatly, Daughter Zion! Shout, Daughter Jerusalem!  
크게 기뻐하여라, 시온의 딸아! 소리쳐라, 예루살렘의 딸아!

See, your king comes to you, righteous and victorious.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온다, 공의로우신 승리한

lowly and riding on a donkey,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낮은 on ~) ~을 타는 당나귀 어린 나귀 곧 당나귀의 새끼(인)

⇒ 크게 기뻐하라, 시온의 딸아! 소리쳐라, 예루살렘의 딸아! 보라, 공의로우시고 승리하시고, 낮으셔서 당나귀, 곧 당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시는 너의 왕이 네게로 오신다.

\* <righteous and victorious 이하 ~ the foal of a donkey>는 앞의 문장 <your king comes to you>에서 <your king>을 꾸미고 있는 여러 개의 형용사와 현재분사(riding on ~)로 이루어진 수식어절이다. 이 수식어들이 주어가 되는 <your king> 바로 뒤에 오게 되면 주어와 동사(comes)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일단 동사를 앞에 놓고 뒤에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속적 용법의 주격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문장을 끊어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크게 기뻐하라, 시온의 딸아! 소리쳐라, 예루살렘의 딸아! 보라, 너의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리고(who is)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며, 낮으셔서(겸손하셔서) 당나귀, 곧 당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신다.

10) I will take away the chariots from Ephraim and the warhorses from Jerusalem, and the battle bow will be broken.

나는 없앨 것이다 에브라임에서 병거들을 예루살렘에서 군마들을 and the battle bow will be broken, 전쟁에서 사용하는 활은 부러질 것이다. ⇒ 나는 에브라임에서 병거들을 없애고 예루살렘에서는 군마들을 없앨 것이며, 전쟁에서 사용하는 활은 부러질 것이다.

He will proclaim peace to the nations, 그는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나라들에게

His rule will extend from sea to sea 그의 통치는 이를(확장할) 것이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and from the River to the ends of the earth, 강으로부터 땅 끝까지 ⇒ 그는 나라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강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 <extend>는 <and>로 이어지는 <from the River ~>이하의 내용까지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해석한다.

### STUDY & THOUGH

■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격화하여 부른 호칭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받을 모든 백성을 가리킨다. 이 백성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그리스도)는 비록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실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의로우시고 승리하시는 구원자로서 이 땅의 모든 전쟁을 폐하할 평화의 왕이시다. 한편 위 말씀 속에 담긴 예언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교회시대에 성취되고 있지만 그 최종적이며 완전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 This prophesy was fulfilled when Jesus entered Jerusalem on the back of donkey.

livingstonech@gmail.com

#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 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왕상18:36)

엘리아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정성을 다해 무너진 여호와와 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합니다.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우다가 단위에 붓습니다. 세 번씩이나 붓습니다. 지금 단에 불이 임해야 하는데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인데도 물을 계속 부어서 단에 물이 가득 넘치게 하였습니 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

다고 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아의 짧은 기도는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아가 이제 응답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한사람이 필요합니다.

## 화 내가 주의 종 됨과(왕상18:36-37)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보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응답해

주셔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의 기도를 응답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주실 줄 믿습니다.

## 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왕상18:37-40)

본문에서 깊이 생각해보는 것은 엘리아의 이 기도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평생 간절히 기도하던 것이 지금 집약돼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 뜻대로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고쳐지고 때로는 내 고집대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가 없습니

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던 엘리아는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자들만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와 불이 임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 목 큰 비의 소리가 있다(왕상18:41)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중 하나입니다. 바알이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준다고 믿던 사람들의 대표들이 모조리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상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3년반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려야 합니다. 엘리아는 구름한 점 없는 그 현장에서 비가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주님께 나올 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한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 금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왕상18:41-44)

진정한 믿음은 다시 간절히 기도하여 이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믿은 대로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큰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점은 겸손함과 간절함입니다. 비는 엘리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믿었으니까 비 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니

다. 본문43절에 일곱 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요 완전의 수입니다. 엘리아는 처음부터 비를 내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조그만 조짐을 보고 큰 기적을 예상합니다.

## 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아에게 임하매(왕상18:45-46)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게 됩니다. 아합왕은 참 재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치만 보다가 마차를 준비해두니까 그냥 도망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엘리아가 마차를 앞질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요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엘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시

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목상할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가슴속에서 울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의 힘보다 마차의 속도보다 더 빠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으신 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올 것입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동구 광운동 340-(131-231)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로주관) VIA DEI QUINTILI 52-38 00175 ROMA, ITALY	<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점심미용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3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6-999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713-26호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b>승중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동 137 번지	<b>시온교회</b>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05-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02)418-0481 Fax.(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b>신촌교회</b>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9: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3142-8080, Fax.(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tinichong.org	<b>안암 제일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82)2-926-4508 서울시 용매문구 안암동3길 50-1 www.anamjeil.or.kr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88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ok.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1942-6881, Fax.(02)1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b>청주주님교회</b>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정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 리더십저널, SimplyYouthMinistry.com 덕 필즈목사의 크리스천 재충전 노하우 소개

온갖 소음이 판치는 세상에서 혼자만 잠잠 하면 귀청이 터질지 모른다. 우리 주위에는 늘 소음이 존재하고 그것도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잠잠하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갖가지 소음을 생각해 보라. 사람들의 말하는 소리, 출퇴근길의 차 소리, TV나 라디오 소리, 휴대폰에서 들리는 동영상 소리 등 우리는 하루 종일 다양한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심지어 소음을 피해 산책하는 중에도 우리는 이어폰을 끼며 또 다른 소음을 귀에 집어넣으려 할 정도이다.

소리가 사라지고 정적이 흐르면 우리는 내면의 삶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음을 찾으려고 한다. 내면을 들여다

보는 것이 외롭고 우울하고 힘겨운 일이기 때문이다. 침묵은 직면하고 싶지 않는 영역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소음을 더 높여가면서 침잠해있는 삶의 현실을 외면하려 한다.

잠잠하다는 건 단순히 귀를 닫고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소음'이란 단지 곳곳에 들리는 물리적인 소리뿐 아니라 마음을 휘젓는 무언가를 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소음과 이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Refuel: An Uncomplicated Guide to Connecting with God).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조용해야 할 마음의 방을 가장 시끄럽게 하는 '범인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찾아보자:

### 염려

염려는 당신을 향해 소리를 질러낼 수 있다. 염려 때문에 우리는 한밤중에 잠을 설치고 공포에 질릴 수 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초조함으로 안절부절못한다. 염려는 마음에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쉬는 휴식 시간에도 고개를 내밀 것이다. 염려는 늘 현재형으로 소리친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긴 안목을 유지하라고 강조하신 것이다. "너희 중

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눅 12:25). 염려는 하나님을 경배

하려고 물건을 사들인다. 걱정되고 긴장되고 화나거나 무료해지면 쇼핑몰에 가서 물건

하지 않는 것이며,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소음이다.

### 탐심

탐심이라는 소음도 우리의 귀를 먹먹하게 한다. 소비 욕구가 가득한 사람은 잠잠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들은 사고 싶은 것을 늘 머릿속에 담고 두고 단순히 마음의 '안정'을

이 아닌 안정을 사는 것이다. 이처럼 소리는 없지만 귀청을 때릴 듯한 욕구의 함성에 우리는 압도당한다. 좀 더 멋져 보이고 근사한 기분을 느끼려면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를 사야 한다고 소비 욕구는 끊임없이 설득한다.

### 지연

지연은 이상한 소음을 만들 어낸다. 오늘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과제를 뒤로 미루면 '꾸물대지 말고 어서 해라'는 나지막한 잔소리가 귓가에서 웅웅거린다. 지연의 효과는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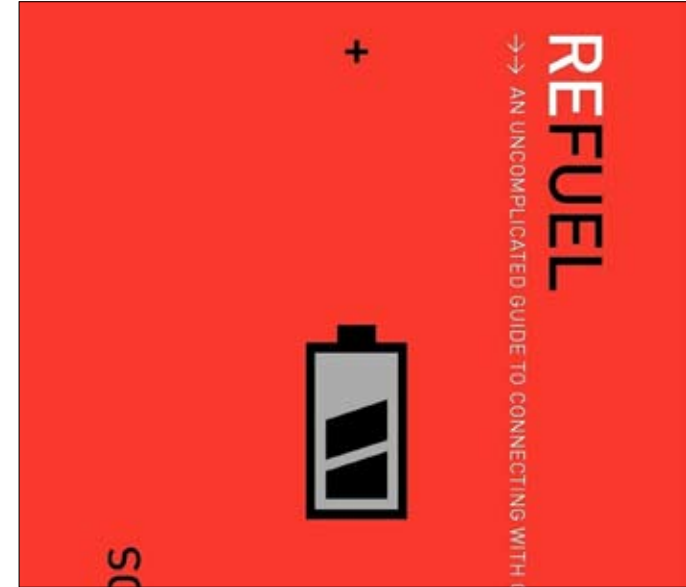
잠잠할 때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다 쉽게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침묵할 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대부분

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지도 모른다.

하루 중 가능한 시간대에 플러그를 뽑는 건 어떨까? 비단 하루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으로 실천하면 더 좋다. 성경에 소개된 영적 훈련 가운데 '금식'이 있다.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음식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를 소음에도 적용할 수 있다. 라디오나 뉴스, 다른 사람을 접하지 말고 물리적인 소리나 방해거리를 차단해보면 어떨까? 우선 한 시간만 시도해보자. 한 시간 버티어보고 뭔가 달라진 기분을 느꼈다면 다시 한 번 시도해본다.

우리는 식사 때마다 휴대폰을 본다. 가족 식사 때도 말이다. 지금보다 조용한 삶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전원을 끈다. 소음이 나고 때때로 당신의 주의를 끄는 휴대폰을 비롯해서 전자제품의 전원을 끈다. 문명을 등지고 현실과 동떨어져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조용한 삶을 추구하려면 다소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종종 자신을 드러내신다. TV나 인터넷에 흠뻑 빠져 있는 우리의 눈과 귀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으신다. 우리가 잠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 하시며, 임재와 사랑으로 에워싸신다. 내면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싶다면 침묵을 추구해야 한다!



## 염려, 탐심, 지연 등 일상 소음으로 현실 외면 침묵할 때 하나님음성 보다 쉽게 들을 수 있어

간이 갈수록 커진다. 금기야는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한다. 결단을 내리지 못한 관계들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힌다. 말하지 못한 사연, 수행하지 못한 과제, 수수방관했던 상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휴식 중에 별안간 머리를 스친다. 나지막한 잔소리가 이내 손톱으로 철판을 긁어대는 소리처럼 변한다.

의 사람들은 주일 설교나 대규모 찬양집회, 영성 세미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소한 일상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다. 침묵하는 동안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해야 할 사람이 생각날 수 있다. 장밋빛으로 물든 석양과 들꽃, 고즈넉한 산을 잠잠히 바라보다가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

##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 갑상샘 저하증

갑자기 피로감이 늘어나면 의심

갑상샘은 우리 인체에서 대사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정상치보다 증가해도 인체에 이상이 생기지만 분비가 감소해도 문제가 발생한다.

- 50대 주부 정모 씨는 평소 에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몸 피곤함을 많이 느꼈고 소화 불량도 자주 오고 변비도 심했다. 또 특별한 원인도 없이 우울함을 느꼈고 손발도 조금씩 붓는 느낌이 들었다. 평소시보다 수면시간이 길어졌고 피부도 건조하고 거칠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갱년기라서 그런가 하고 갱년기에 좋다는 건강식품도 복용해봤지만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정씨는 한여름에도 추위를 땀과 가족들이 덥다고 해도 에어컨을 틀 수가 없었다. 정씨는 과거에 특별한 질병을 앓거나 수술을 한 적은 없었다. 담배나 술은 전혀 하지 않

았다.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온 지 20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건강검진은 전혀 받지 않았다. 의학적 증상 맥박이 분당 50회로 조금 느렸고, 혈압이나 체온은 정상이었다. 그 외의 검사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지만 사지의 반사가 조금 느려 보였다. 혈액 검사 상 갑상샘 호르몬 수치가 현저하게 낮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다. 정 씨는 갑상샘 저하증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 -

갑상샘 저하증은 50세 이후의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내륙이나 산악 지역 등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

되었지만 요즘은 소금에 요오드를 첨가하므로 요오드 결핍으로 발생하는 갑상샘 저하증은 거의 없다.

갑상샘 저하증의 95%는 갑상샘 자체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한다. 가장 흔한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 하시모토 갑상염이고, 갑상샘 항진증을 방사선 요오드요법으로 치료한 후에 합병증으로도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갑상샘 절제 수술 후에도 갑상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갑기 후에 갑상샘에 염증이 생겨도 갑상샘 부위가 붓고 갑상샘 호르몬 수치가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3-6개월 후에는 정상으로 회복된다. 특정 약물에 의해서도 갑상샘 기능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갑상샘 저하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증상이 없지만 그 정도가 심하게 되면 증상이 명확해진다. 초기의 경우 대부분 노화 현상이나 갱년기 증상으로 생각하고 넘기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진단 받는 경우가 흔하다.

일단 진단이 되면 갑상샘 호르몬 요법으로 쉽게 치료되며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서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갑상샘 저하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갑상샘 기능이 의심되는 경우는 의사를 찾아가서 상의해야 한다.



# KIM Mission -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글로벌 세미나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에서 보는 세계선교)

### 사역멘토 (KIM Ministry Mentors)

 장동찬 목사 (NBC대교구 원로목사)	 토나하트만 목사 (SA Anglican Fellowship)	 손찬식 목사 (SO 성일교회)	 전광성 목사 (NY하크대사미교회)	 김용식 목사 (상백울영광장로교회)	 임재량 목사 (모든영광, 크리스티안교회)	 김태석 목사 (보령신교회)	 강대영 목사 (역스틴관교회)
대표		파송선교사		이사장		부이사장	
 김성남 목사 (미국군교회)	 융창 목사 (LW Comm. Church)	 배나베오스 목사 (미국군교회)	 김정용 박사 (에티오피아)	 임이근 장로 (스페인, 라스팔마스)	 최도문 박사 (지리산, 엘라스)	 강태원 장로 (비즈니스, NJ)	 이광원 장로 (C. Global, NY)
 황석광로 (프랑스 파리)	 황규준 박사 (비즈니스, NY)	 손동우 박사 (비즈니스, NJ)	 이규안 수필가 (신영개발, 서울)	 임소영 자매 (간호사, NY)	 강동철 집사 (Boston, MA)	 이순권 박사 (지리산, TX)	 김중대 장로 (토론토영광교회)
기도이사							
 김상광로 (WCF, 모튼로 회당)	 김호애 박사 (COP Hitch 데빌)	 윤세범 장로	 최보람 권사	 최인덕 권사	 윤천경 권사	 육진영 권사	 서희길 집사

### [퍼스펙티브스 -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유튜브 동영상 강의 진행 중]

KIM Mission이 지난 18년 간 미주와 전세계 선교지 및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집중 보급해 온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미션 퍼스펙티브스 한국어 세미나)가 지난 2018년 11월부터 매주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youtube.com)를 방문하셔서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혹은 "김경환 TV"로 검색하시면 모든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부분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퍼스펙티브스 세미나 1-15과 전과목, 특강1. "한국교회 역사" 특강2. "이슬람의 생명신학"에 이어 특강3.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특징(트렌드)" 강의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78강 업로드). 이 세미나를 통해 선교적인 삶으로 재현신한 우리 김 미션의 동역자들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 World Christian Movement 이 전 세계로 확산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던 피터 웨그너 Peter Wagner 박사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라고 외친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좌우명을 우리 삶속에서 실천하고자 자비량 선교와 자비량 헌신을 다시금 다짐합니다.



김 미션이 오래 동안 기도해 오던 **유비쿼터스 (Ubiquitous)** 사역은 유튜브 영상과 우리가 직접 제공하는 세미나 자료를 사용하여 선교 현지 선교사님들께서 이 강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전략을 현지인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방식으로 계속 확산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 미션은 미주 전역과 전 세계 선교지에서 이 세미나 혹은 선교사경회를 원하는 지역교회, 선교단체 혹은 작은 규모의 선교현지 선교사님들의 모임이라도 있으면 직접 가서 자비량으로 섬겨드립니다.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KIM MISSION) [www.KIMMission.org](http://www.KIMMission.org)  
\* 연락처: 김 미션 본부 (626-354-2294), E-mail: 1020miracle@gmail.com